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19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21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불교중흥 · 국난극복'의 원력으로 전국을 다녔던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에 대한 선언이었다. 사진은 순례 회향을 하루 앞둔 10월 26일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순례단이 서울 강남 봉은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관련 기사 2면 · 칼럼 6면〉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할렐루야" 광신도, 사찰 방화 '충격'

## 남양주 수진사, 10월 14일 화재로 산신각 소실

## 범인 B씨, "신의계시 받았다"

## 돌로 불상 훼손 등 가해 지속

## "증오범죄 참사" 시각 지배적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확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개신교계 광신도의 고의적인 방화로 총화종 前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남양주 수진사의 전각 한 동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범인은 이미 1년 가까이 사찰을 맴돌며 불상에 돌을 던져 훼손하거나 사찰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지속적인 훼불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를 외치고 기독교 성서인 성경 구절을 외면서 스님과 신도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왜곡된 신앙에 기인한 명백한 훼불이자 '증오범죄'로 인한 참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증오범죄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남양주 수진사(주지 남정, 총화종 前 종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7시 20분경. 사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본부가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 불로 사찰 전각 6동 가운데 산신각 1동이 골조 일부만 남긴 채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다. 산신각 소실로 인한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날 화재가 개신교계 광신도에 의한 의도적 방화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화범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수진사를 맴돌았던 인물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범종각에 게재된 법회 안내 현수막 두 개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경내에 조성된 와불 위로 올라가거나 호신불에 돌을 던져 훼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상습적인 피해를 주고 사찰 대중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가량 저녁마다 사찰에 찾아와 범종 위에 올라타고 성경 구절을 외우며 타종의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법회를 방해하고 신도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하는 등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B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조사에서 "법당에 있는 촛불로 방석에 불을 붙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진사 방화가 왜곡된 종교관으로 인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B씨가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함이 감돌고 있다. B씨의 전적을 알고 있는 신도들은 그가 오히려 정신이상 등을 이유로 짧은 형량을 받는다면, 보복을 위해 수진사에 찾아와 더 심각한 행위를 하지 않겠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수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오 스님은 "범인이 방화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그동안 사찰에서 지속해 온 상습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단순히 재산손실에 따라 사건을 보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은 "사찰 방화라는 폭력적 행위의 근간에 왜곡된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는 점이 충격"이라며 "비록 개인의 일탈이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이 없는 행위는 우리 종교인들이 노력해 온 종교간 평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차별없는 사회는 서로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데서 나온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책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는 '불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함' 제하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사찰 당국과 불자분들에게 방화범과 같은 한 개신교인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종교평화를 외치는 신학자로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 명상 대가들 한자리서 코로나 마음치유 법석

## 한국명상총협회, 11월 14일 부산 벡스코서

## 각산 스님 · 이시형 박사 · 베르나르 신부 강연



각산 스님



이시형 박사



베르나르 신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우울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팍팍한 사회 속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고점을 찍고 있다.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이 시대, 고통 받는 중생들의 마음을 명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정신의학, 영성, 명상 분야의 대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국민 힐링 법석을 마련한다.

한국명상총협회(운영위원장 이용태)는 11월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명상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한베경제문화협회(회장 전종호)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부산시민과 국민의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개최되는 만큼, 부산해운대구청 후원으로 참가비 없이 진행된다.

특히 강연자로 국민 의사 이시형 박사(세로토닌 문화원장)와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 前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베르나르 신부가 나서 주목된다. 세 명의 강연자는 이 시대 학계와 종교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인물로, 정신의학적 관점과 명상법, 영성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전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다. 주최 측은 "명상 힐링 콘서트는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대국민 응원의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명상 콘서트는 오후 2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의 축사로 포문을 연다. 첫 번째 강연자는 이시형 박사,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명상특강에 나선다. 이시형 박사는 현대의학이 밝혀낸 면역력의 핵심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개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음식과 생활습관, 건강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자로는 베르나르 신부가 나서 '참선 속의 행복명상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베르나르 신부는 프랑스 보드로 의대 재학 중 예수회 사제가 된 이력을 갖고 있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의 문제를 직시해 그 안의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각산 스님이다. 각산 스님은 참불선원장이자 한국명상총협회장,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으로 간화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불교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법과 지혜 통찰' 주제강연을 통해 마음의 치유로 몸의 병까지 치유하는 고대 불교명상의 정혜쌍수법인 호흡명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님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상태를 대비해 면역수치를 설명한데 이어, 매일 명상 참선의 생활화로 현실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통해 타고난 면역체계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과도한 스트레스과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근원은 마음관찰의 간화선과 호흡명상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명상과 정신의학 영성 등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선물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시민을 위한 코로나 치유마당 '명상대강연'을 개최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부여
(활동기준 : 연 2회 이상 회의,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 · 선무도 · 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 구 분 | 신청기간 | 결과발표 |
|---|---|---|
| 승려연수 인증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신청 | 공고일 ~ 11월 20일(금) | 12월 중 |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담당 : 홍선영 행정관) ☎ 02-2011-1817
- 우)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참조

불기2564(2020)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10월 26일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례단은 21일간 묵언 정진과 방역을 상징하던 마스크를 함께 잠시 벗으며 정진 회향의 환희심을 드러냈다.

# 만행결사 회향서 새 출발 기약
# 코로나 종식 기원 끝없는 정진

##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서 회향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 511km 걸어 봉은사서 회향**
**상월선원서 결사정신도 되새겨**
**순례단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
**코로나 극복 삼보사찰 순례 기획**
**원력 · 신심으로 중흥 출발 발원**

"시방삼세 두루하신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원만성취 하였습니다. 이 원력과 신심이 널리 퍼지고 이어져서 한국불교 중흥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 전에 엎드려 절하옵니다."

전국의 불자들이 서울 봉은사에 모여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회향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위례 상월선원을 거쳐 다시 봉은사로 돌아오는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고 회향식을 가졌다. 총 511km의 대장정을 소화했음에도 순례단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봉은사 일주문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응원과 함께 인도 만행결사까지의 원력을 함께 모았다. 17대 종회의원 스님들과 사찰 주지 스님들, 대구 동화사, 적석사, 수국사, 약사사 등 순례에 참여한 스님들이 주석하는 사찰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길게 늘어서 순례단을 맞이했다. 순례단이 봉은사 일주문을 넘을 때는 저마다의 사찰 스님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순례단은 대장정의 끝으로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 도열했다. 김정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선창으로 모두 함께 발원문을 낭독하고 대장정은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선 새벽 순례단은 천막결사가 진행된 위례 상월선원으로 순례를 진행해 법회를 봉행했다.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 길을 나선 순례단은 탄천변 자전거길을 통해 위례 상월선원에 도착했다.

순례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부부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순례에 동참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함께라는 가치를 알려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에 하남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용맹정진 당시 공양 올려진 잣죽을 아침공양으로 올리기도 했다.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은 "만행결사가 잘 이뤄질까 염려했지만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아 회향됐다. 이는 불자분들 모두의 공덕"이라고 말했다.

순례에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 유승 스님은 "막상 회향하려니 서운한 생각 뿐"이라며 "문경새재 이화령을 넘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선두였는데 난코스였다. 하지만 힘든 오르막을 오르고 나니 내리막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불교 중흥 또한 어려운 만큼 마음을 모으면 중흥의 길이 함께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데 모여 수행하기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이란 이번 자비순례의 목적에 따라 정진해줘 감사하다. 순례단 뿐만 아니라 지원단과 취재에 나서준 언론사, 길 위에서 응원을 보내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선원은 이번 국난극복 불교중흥을 위한 자비순례 이후 만행결사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삼보사찰 순례를 기획하고 있다.

만행결사 대중이 전한 이야기

# "상월결사, '차별없는 불교'로 가는 길"

## 회주 자승 스님 10월 26일 자비순례 자자회서 강조해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월 26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서 자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는 차별없는 불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불교의 사부대중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불교는 '차별없는 세상'에 있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자자회'에서 불교가 나아갈 길로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를 제시했다.

먼저, 자승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두두물물 개유불성(頭頭物物 皆有佛性)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 3가지 키워드를 순례 대중에게 제시하며, 공통어를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중들은 '무차 평등'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등의 답을 내놨다. 하지만, 모두 정답은 아니었다. 자승 스님이 내놓은 정답은 '차별 없음'이었다.

자승 스님에 따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개개인 모두 존귀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으며, '두두물물 개유불성'은 모든 생명에는 차별없이 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화두는 '차별 없음'에서 출발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미래는 차별없는 세상을 사부대중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차별 없음'을 보여주려 했다"면서 "천막 안팎으로 차별없이 수행하고 기도했다. 만행에 올라서는 사부대중이 같은 곳에서 자고 같은 것을 먹었으며,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승 스님은 '차별없는 사부대중'이 불교 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했다. "인도의 불교는 이제 흔적만 남았다. 방일하면 한국불교도 역사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 스님은 "종단이 해코지를 당할 때 이를 지키는 동력은 '차별없는 사부대중'에 있다. 사부대중이 차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이뤄졌다"며 "21일 동안 이어진 원력의 장정이 한국불교 미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자회에서 대부분의 순례 대중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함께 고된 길을 걸었던 도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순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천착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기도 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차별없는 세상과 불교는**
**미래불교가 지향할 목표**
**종단 수호 동력 '無차별'**

**순례과정 소회 함께 나눠**
**암투병 도반과 완주 감동**

최고령 참가자인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이 수행은 어떠한 정진보다 훌륭했고, 보람이 있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순례 대중이 이 같은 고민을 함께 하면 일당 백 · 천 · 억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불교중흥을 위해 불철주야 심려를 놓지 않고 대장정에 오른 자승 스님과 동참한 사부대중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통해 얻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안락과 이익이 되는 순례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암투병 환자와 그의 도반이 함께 자비순례에 동참한 우바이의 사연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암투병 중인 최용수 포교사는 "새벽에 발자국 소리와 정적을 깨는 스틱 소리를 내어 죄송하다. 하지만 그 스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제 사정을 헤량해 달라"면서 "저는 걸으러 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피였고, 스틱 소리는 목탁소리였다.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스님은 침을 놔줬다. 지금 이 자리는 사부대중 덕분에 서 있는 것이다. 모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의 도반 김정숙 씨는 "암투병 중인 도반에게는 더 뜻 깊은 걸음이었을 것이다. 같이 걸어준 도반께 감사하다. 그 친구를 위한 기도가 내 자신이 편하려는 것인 줄 알게 됐다. 참회한다. 그래서 회향을 동시에 남을 위한 기도에 입재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교계 주요 재가 인사들의 자자와 동참 소감도 이어졌다. 재가 대표인 정충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는 "모든 분들 덕분에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었다. 길에서 만난 모든 인연과 삼라만상에 감사드린다"면서 "공주 예비순례를 준비하며 지난 6월부터 150만보를 걸었다. 순례 원력을 바탕삼아 의미있는 회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2일째 여명과 함께 마주한 스님들의 행렬에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보았다. 제자리에서 저를 갈고 닦아 한국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자회 이후 순례단은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저녁 공양 후에는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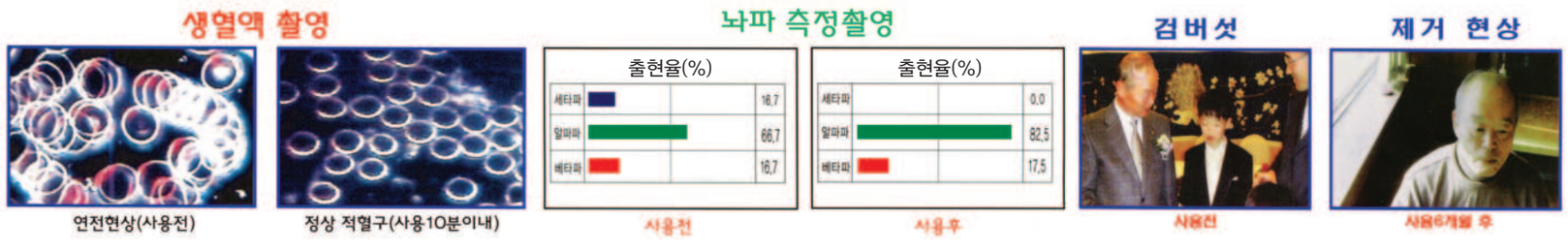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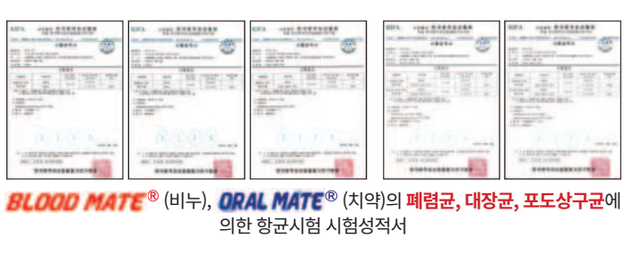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 은닉된 도난 성보 30년 만에 '제자리로'

## 조계종 · 서울 지수대, 불교문화재 32점 회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에서 도난돼 행방을 알 수 없던 불교 성보문화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와 협력해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도난된 뒤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해당 도난 성보문화재는 모두 前사립박물관장 A씨의 소유로 그는 불화 2점을 경매에 출품했다. 조계종은 올해 1월 13일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해 경매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경매에 출품된 불화가 도난됐던 포항 보경사 불화임을 확인해 이를 지수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지수대는 경매사에 등재된 도난 불교문화재의 압수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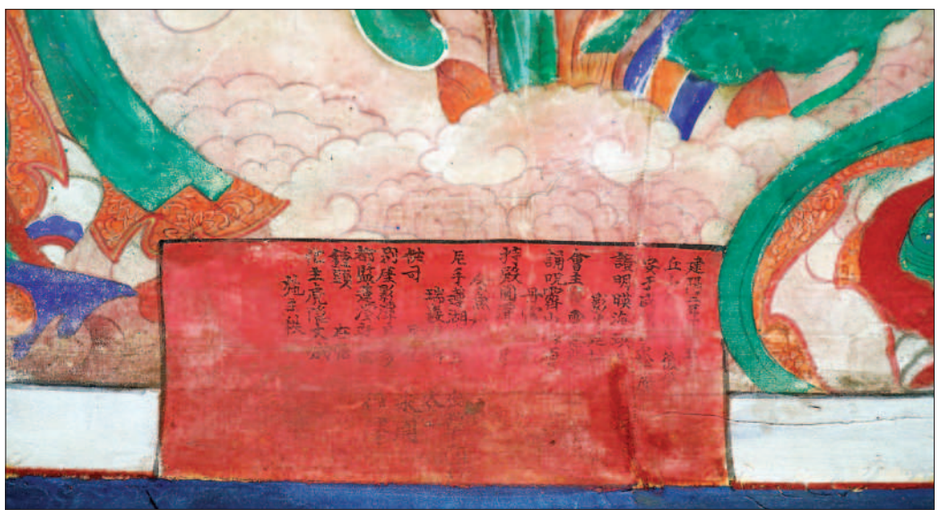
지수대는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9일 조계종 문화재 담당자와 함께 은닉처를 확인하고, 이 중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임을 확인한 16건 32점을 즉시 회수했다.

장기간 전문적 보존시설이 아닌 곳에 은닉돼 있던만큼 보존 상태는 최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화의 경우 경화(硬化, 딱딱하게 굳음)로 인해 제대로 펼 수조차 없거나 채색이 박락(剝落, 떨어짐)됐으며, 불상은 목재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채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회수된 도난 불교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많다"면서 "이런 불교문화재들이 적절한 환경에 보존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보존을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난문화재인 것을 은폐하고 의도적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에 따르면 하단에 제작시기와 봉안처를 기록한 불화의 화기(畵記)를 잘라내거나 사찰명을 지우는 등 훼손이 이뤄졌다. "도난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했고,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라는 게 조계종 문화부의 설명이다.





회수된 벽송사 후불도(사진 왼쪽)와 훼손된 화기(사진 오른쪽)의 모습. 불화가 보존 환경이 좋지 않아 경화되고 구겨졌으며, 화기에 사찰명을 의도적으로 지워 도난품임을 은폐하려 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문화부

**1988~2004년 도난돼 성보들**
**前박물관장 A씨 장기간 은닉**
**올 1월 경매 출품하다가 덜미**
**경화 · 박락 등 보존상태 '최악'**
**"성보 관련 선의취득 폐지돼야"**

조계종은 올해 6월 은닉됐던 도난문화재가 몰수되는 판결을 근거로 회수된 성보들이 본래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종단은 현재 확인된 도난 불교문화재가 원래의 사찰로 돌아가 예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제도 폐지 등 도난 예방과 회수된 도난 문화재의 조속한 환지본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장자인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의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 은닉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으며, 올해 6월에는 대법원에서 문화재 은닉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도난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 "21세기 불교 혁신의 상징 '대행 선사'"

**10월 24일 한마음과학원 세미나**
**대행선사 혁신, 5개 분야로 분석**
**'심리학' '자연과학' 접목 논문도**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4일 '대행 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5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혁신가로 일컬어지는 대행 선사. 선사의 혁신가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불교 발전에 어떤 기여 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재단 이사장)이 10월 24일 '대행 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진행한 제5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서 이문성 위덕대 명예교수는 '대행선사의 혁신가적 특성과 선구적 업적의 혁신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발제를 통해 대행 선사의 혁신가적 면모를 조명하고 업적 중 혁신 분야를 새롭게 분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의 혁신가적 특성을 △연계역량 △질문역량 △관찰역량 △실험역량 △네트워크역량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가 펼친 업적에 대한 혁신성도 도출해냈다. 이 명예교수는 혁신 업적을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포교의 세계화와 현대화 △불교와 과학의 융합으로 나누어 보았다.

세부적으로 △불교의 생활화에는 한마음 주인공 사상과 주인공 관법, 선법가 수행과 포교도구 활용, 거사합창단 창단 등 △불교의 현대화에서는 장엄물 간소화와 신비주의 배척, 일반신도 담선법회 및 법형제회 정기법회 등 △포교의 세계화와 현대화에서는 한마음국제문화원 설립과 현대불교 창간, 해외지원 개설 등 △불교와 과학의 융합에서는 한마음 심성과학연구원 설립과 사회적 실천 및 직무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마음저널 발간 등을 들었다.

이 명예교수는 "이러한 업적은 한마음선원은 물론이고 불교계, 사회, 국가, 세계 차원에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근현대 불교계에서도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산중불교에서의 탈피, 전통의 수호, 불교 현대화 추구와 사회문제 참여로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가 남긴 '혁신'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한마음과학원 원장이자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개인은 개인대로 팀은 팀대로 논문을 준비하기 어려웠을텐데 함께 해가며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논문들이 과학원 과업에 꼭 필요한 논문들이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은 어느 분야서도 안 통하는 곳이 없다. 그 방대한 가르침을 현대 학문과 접목하는 일에 꾸준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번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점검, 가림판 설치 등 방역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마음과학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일부 토론의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태고종 총무원 · 비구니회, 협력방안 모색

**10월28일 전통문화전승관서**
**총무원장 주재 첫 연석회의**
**위상제고 · 교육방안 등 논의**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연석회의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과 전국비구니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 1300명을 대변함에도, 친목단체를 넘어서지 못했던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10월 28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비구니회(회장 현중) 임원진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27대 총무원 출범 이후 총무원장 주재로 열린 첫 비구니 연석회의로, 전국비구니회의 종단 내 위상 과제고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열린법석으로 마련됐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27대 집행부는 종헌종법에 따라 모든 종도를 아우르고 함께하는 가운데 종단 안정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 또한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종단관과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성오, 총무부장 도성, 문화부장 원오, 홍보부장 청공 스님이 배석했으며, 전국비구니회 측에서는 회장 현중 스님과 고문 법련 · 공암 스님, 자문위원 지우 스님, 부회장 능인 · 묘련 스님을 비롯한 전국지부 소임자 스님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비구니는 연석회의를 마련해 준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집행부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한데 이어, 비구니회의 종단 내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내놨다.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이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친목도모 차원을 넘어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오늘 자리가 총무원과 비구니회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19 조기종식, 국운융창을 위한
신흥사 영산회상도·시왕도
귀국 환영법회

6·25 전몰 장병 천도재

▶ 일시 : 2020년 11월 9일 9시~13시
▶ 장소 : 신흥사 통일대불
▶ 문의 : 033)636-7044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관 사)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후원 강원도, 속초시, 국외소재문화재단



# ‘10.27법난’ 40년 “국가권력 피해에 시효없다”

## 조계종, 40주년 추념식… 법난 피해자 참석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가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10.27 법난이 발생한지 꼭 40년이다. 10.27 법난은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한 희생양으로 불교를 침탈하고, 이로 인해 불교계에 극심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긴 아픔의 역사다. 법난으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을 비롯한 스님 등 불교계 인사 1770여명이 강제로 연행됐으며, 고문과 폭행을 당해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스님도 적지 않았다. 40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불교계에 대한 명예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10.27법난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추념하기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10.27법난 40주년 추념식’을 봉행했다. 추념식에는 명예원로의원 명선 대종사와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삼혜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등 교역직 스님과 법난 피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0.27법난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념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 규명 등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시효가 없다”며 “10.27법난 역시 피해 생존자들은 물론,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규명 노력을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제36대 집행부는 10.27법난 추념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혀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위법망구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0.27법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을 위해 2024년 강남 봉은사 부지에 10.27 기념관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난 피해자인 명예원로의원 명선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27법난 당시 상황을 전시한 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다.

**조계사서 피해자 천도재 봉행도**
**국가권력에 침탈당한 역사 조명**
**정부에 진상규명 · 명예회복 요구**
**교구본사 · 피해사찰, 현수막 게재**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총무부장)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강제 연행됐고 엄청난 고문과 조작이 뒤따랐다. 한국불교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스님들은 부패한 경제사범으로 매도당했고 수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매도에 실망하여 불교에 등을 돌렸다”며 “이 모든 것이 ‘국가권력의 남용’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무려 27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스님은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표명됐고 이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구체화 되는 등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았고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10.27 법난 피해 생존자가 58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 역시 77세로 대부분이 먼 미래를 기약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이라며 “한국불교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하루빨리 10 · 27법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히 한국불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대표로 인사말을 한 명예원로의원 명선 대종사는 “종단에서 10.27법난의 진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법석을 이렇듯 여법하게 마련해 준데 대해 총무원장 스님께 깊이 감사한다”며 법난 당시 화엄사 주지이자 직접적인 피해자로 강제 연행 이후 65일간 이어진 감금과 진실왜곡을 위한 요구, 폭력에 대해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추념식에 앞서 법난 40주년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 사상 처음으로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전국 교구본사와 법난 피해 사찰에서는 당일 오전 10~11시 일제히 40주년 추념 의미를 담아 타종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재했다. 또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법난 로고를 개발하고 샌드아트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법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 21부터 2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10월 26~28일 서울 봉은사에서 10.27법난 특별 전시회를 진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에 공개되는 용주사 감로도(사진 왼쪽)와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오른쪽).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 화성 용주사 성보에 담긴 孝이야기

**불교중앙博 ‘용주사’ 특별전**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 돼**
**〈부모은중경〉 목판 · 석경 등**
**효행 본찰 용주사 면모 확인**
**칠장사 괘불탱 공개도 ‘눈길’**

화성 용주사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로 조선 후기 정조의 효심이 담겨진 효행본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용주사 성보문화재 속에 담겨진 효 사상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내년 2월 28일까지 ‘효심으로 나툰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인 교구본사 특별전에는 국보 1건, 보물 10건, 유형문화재 15건, 세계기록유산 1건 등 경기남부권을 대표하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소속 말사들의 성보문화재들이 선보여진다.

총 4부로 진행되는 전시는 용주사 전신인 갈양사의 가지산문 선맥부터 효 사상과 왕실문화 관련 성보문화재, 근현대 용주사 선지식까지 용주사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거나 비장(備藏)됐던 성보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문화재가 국보 제296호 칠장사 오불회괘불이다. 길이 6.56m, 폭 4.04m의 칠장사 오불회괘불은 구름을 이용해 상 · 중 · 하 3단으로 구분됐다. 상단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불과 노사나불이 좌우에 모셔진 삼신불을 묘사하고 있고, 중간은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들이 있어 삼세불을 표현했다. 하단에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그려 수미산 정상의 도솔천궁을 표현했다. 이 같은 3단 배치는 예배자들에게 삼신불과 삼세불의 세계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구원으로 도솔천궁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칠장사 오불회괘불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별전 기간에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칠장사 오불회괘불은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설치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세 차례 예약을 받아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후인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1933년에 조성된 용주사 괘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2호), 용주사 감로도, 칠장사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보물 제1627호),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보물 제1095호), 청원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복장 전적(보물 제1795호) 등도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성보문화재로, 이번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 문경 봉암사 마애불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29일 지정 예고**
**조선 경전 · 고려 청동북도**
**보물 기사계첩, 국보 승격**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과 조선시대 경전과 고려시대 사찰명문 청동북이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과 조선 초에 제작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 고려 명종에 조성된 ‘미륵원’명 청동북을 보물로 승격 · 지정 예고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은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1663년(현종 4)에 제작된 마애불로서, 경북 봉암사 옥석대에 위치해 있다. 제작시기와 주관자, 존상(尊像) 명칭은 풍계명찰(楓溪 明察, 1640~1708)의 문집 〈풍계집(楓溪集)〉에 수록된 ‘환적당대사행장’을 통해 확인된다. 명찰은 17세기 승려 환적당 의천의 제자로, 이 책에 의천이 발원해 마애불을 조성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좌상은 높이가 539.6cm, 너비가 502.6cm 정도이며 머리 주변을 깊게 파서 광배 형상을 만들고, 위는 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얕은 부조로 처리했다. 특히 얼굴과 자세, 착의법 등 세부표현에서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2)’,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 등 17세기 괘불 표현요소를 찾아 볼 수 있어 불화와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불상의 수인(手印)은 미륵불의 수인 중 하나인 ‘용화수인(龍華手印)’으로, 두 손으로 긴 다발형의 꽃가지를 쥐고 있는 모양이다. 1663년이라는 뚜렷한 제작연대를 염두에 둘 때 마애불 도상이 확인된 기준작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미륵원’명 청동북은 측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으로 통해 1190년(고려 명종 20) 미륵원에 걸기 위해 제작한 금고(金鼓)임이 확인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기 청동북 중에서 비교적 큰 크기의 대형 청동북이며, 문양의 조각 솜씨가 좋고 주조 기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또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는 중국 당나라 승려 규봉종밀의 초본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465년(세조 11년)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한 것으로 줄여서 〈원각경(圓覺經)〉이라고 부른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는 전래되는 판본이 적은 귀중본으로서, 15세기 국어학과 서지학, 금속활자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2 ·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포상

## 교육원 포상식… 정천 · 도업 · 광일 · 영호 스님 수여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시행한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 정천 스님과 도업 스님이 선정됐다. 또 9월 11일 시행됐던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는 광일 스님과 영호 스님이 선정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0월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2 ·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2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수석합격자로 선정된 정천 스님은 회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현재 종단 교육아사리로 활동하고 있다. 비구니 수석합격자 도업 스님은 동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종단 교육아사리이며 현재 성공회대에서 불교를 강의하고 있다.

4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수석합격자로 선정된 광일 스님은 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16년 직지사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올해 기본선원을 졸업했다. 비구니 수석합격자 영호 스님은 정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16년 직지사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고 올해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날 포상식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승가고시에 임한 스님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인 만큼 막중한 역할이 있다”며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한국 불교 미리를 일궈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4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사 · 명덕 법계’ 및 2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덕 · 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9일 2 ·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포상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영호, 도업, 진우, 정천, 광일 스님.

#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지본처 기념한다

**오는 11월 9일 통일대불서**
**성보 귀국 환영법회 봉행**

한국전쟁 직후 사라진 후 미국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법석이 열린다. 특히 이날 법회는 성보의 진정한 환지본처 의미를 되짚는 동시에, 코로나19 조기종식 및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는 11월 9일 오전 9시 경내 통일대불에서 신흥사 영산회상도 · 시왕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신흥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강원도와 속초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날 법회는 영산회상도와 시왕도의 환지본처 의미를 되새기는 법석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아 봉행된다는 점에서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민 정서를 위로하는 치유의 장이기도 하다.

환영법회에 앞서 6.25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국내외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6.25 전몰 희생영령 위령제’도 봉행될 예정이다. 위령제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으로 대령과 관욕, 어산종장 화암 스님 집전의 불공으로 거행된다.

송지희 기자

# 생명 지키는 '환경 보살'이 되어주세요"

##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 환경 명상절 108배 챌린지
### 의식 전환을 통한 생활변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불교환경연대 천도 스님이 10월 30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명상절 108배' 절 명상을 시작했다.

"지구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절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과 자연을 생각하며 절합니다."

울산 녹색사찰 백련사 주지 천도 스님의 '환경명상절 108배' 문구들이다.

천도 스님이 10월 30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 명상을 시작했다. 스님은 '환경명상절 108배'를 '도전', 챌린지라고 했다. 지구를 지키겠다는 스님의 도전이자 지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천도 스님은 '환경 명상절 108배'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 '의식 전환'을 꼽았다.

스님은 "불교 수행의 일환인 절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전환시키고 생활 속에 습관을 바로 잡아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는 인간들의 과도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한 과잉소비, 크고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들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절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하며 시기했던 고달픈 마음도 내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환경명상절 108배는 유튜브 채널 '오 마이 붓다'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스님이 안내하는 절 명상 문구에 따라 절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실천할 내용을 마음에 담아 생활하면 된다. 챌린지 동참은 환경을 위한 구호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를 외치고 절 세 번을 영상으로 녹화해 링크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에는 예고편과 절 명상 문구가 담긴 전체 풀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다. 앞으로 스님은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 북을 비롯해 모든 SNS에 업로드 하고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천도 스님은 "단 1분! 하루에 1분만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며 "절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심정으로 지구 환경을 위한 마음을 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불교환경연대는 11월 7일 오전 10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위치한 국유림지에서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생태방생법회'를 개최한다.

# 불교문화 축제 팔공산 '승시' 온택트로

##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제11회 승시 축제 개최

대구시는 제11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온라인 축제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됐던 '승시'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는 스님들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는 단순한 시장의 의미를 넘어 각 사찰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화유산이다. 대구 팔공산에서 지난 2010년부터 개최되는 승시 축제는 올해 제11회째로 사찰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축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 기존 현장 체험 방식의 축제에서 온라인 참여방식의 축제로 방향을 전환해 개최했다.

따라서 지난해 진행했던 '승가씨름대회' '사찰음식체험' 등 직접 접촉하는 행사는 없애고 '온라인 승시 골든벨' '유튜브 승시 특별강좌' '스님과 함께하는 랜선 사찰음식 만들기' 등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추가했다.

행사는 10월 30일 영산재와 개막법요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이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다. 31일에는 사경대회, 신명나는 국악한마당 행사가 열렸으며, 11월 1일에는 승시음악회, 법고대전 행사가 개최됐다.

각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표는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으며, 축제를 관람하고 싶은 시민은 유튜브 채널 '동화사' 'BBS불교방송'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교방송을 통해 녹화된 축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현장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승시축제를 발전시키는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탑사 · 쌍봉사 제9회 어르신 생신 잔치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 〈사진〉을 개최했다.

10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가 주최하고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단장 윤복길)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 진안동부새마을 금고(이사장 조용국)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나해수 진안부군수, 조용국 동부새마을 금고 이사장, 진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참석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했다.

진안 어르신 생일잔치는 점차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농산촌 고령화 문제와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이산 탑사, 쌍봉사,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 동부새마을 금고, 진안자원봉사센터가 마련했다.

행사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출연진과 어르신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장구공연팀의 신명나는 장구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가수 서윤등의 노래와 민요 공연이 열렸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부모님은혜'와 '고맙소'를 불러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쌍봉사 만복의소리합창단도 노래로 어르신들의 흥을 더하며 생신을 축하했다.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기에 자랑스럽고 이런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다"며 "어르신들이 건강 잘 유지하셔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어르신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산불교聯, 비대면 '2020팔관회' 성료

## 2500여 재가불자 온라인으로 동참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집니다."

부산불교계가 부처님의 계를 지켜 인간성을 회복하고 맑은 사회를 이루는데 호국의 초석(礎石)이 있음을 강조했다. 팔관회에는 50여명의 대중들이 참석했지만 보이지 않는 수호신중처럼 2500여 재가불자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비대면 행사였지만 참여도와 방역 규칙 준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는 평가다.

(사)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은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극복 기원 2020 팔관회' 〈사진〉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우선 영산회상의 거룩함을 찬탄하고 호국영령의 천도를 기원하는 호국영령위령재로 시작을 알렸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은 범패 의식을 진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어 코로나 조기 종식과 국태민안,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호국기원법회가 진행됐다.

호국기원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호국기원문 낭독 및 기도 △팔관회 봉행개요 안내 △봉행사 △대회사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빛고을나눔나무, 2020미얀마 정수시설 후원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동현, 상임이사 보응)는 10월 27일 광주 수자타 야외무대에서 '2020년 미얀마 불교사원학교 대형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후원행사' 〈사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보응스님, 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신도회장,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동구청장과 불교신행단체 대표 등 50여명 사부대중이 참여해 진행됐다.

동현 스님은 "우리가 지원하는 대형정화시설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는 토대다. 전체 물은 아니지만 최소한 먹는 물이라도 정화되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을 주는 것은 인류애의 출발이자,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작은 보시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외 50인으로 한정한 행사는 식사제공 없이 1년간의 사업을 영상과 이야기 손님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고창 선운사 정신 스님 선서화 특별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승려노후수행기금과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성웅당 정신 스님 선서화 특별전〈사진〉을 개최한다. 10월 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리는 이번 선서화 특별전은 대형 달마도와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성도 병풍, 복하도, 사군자, 매화도를 비롯해 그동안 정신스님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정신 스님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붓을 잡는 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1973년 출가이후 50여년간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에 선보이는 작품 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달마도 입상과 복하도 병풍으로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회군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불 논단

# 차별없는 세상 나아가는 한 걸음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그림 · 최주현

**상월결사, '중생 찾아가는 불교' 선언**
**자자회서 자승 스님 강조한 '차별없음'**
**일체생명 존중받는 차별없는 미륵세상**
**순례 회향, 중생 일깨우는 새로운 행보**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 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당신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부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한 귀퉁이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천막결사에 동참한 아홉 분 대중 스님의 고불문 한 구절이다. 도심 한가운데를 부다가야로 삼아 붓다의 삶을 좇겠다는 서원이 이 고불문의 한 구절에 오롯이 담겨있다. 산중의 조선불교 500년, 그리고 불교 대중화를 위한 근대 10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중생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었기에 중생이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었던 600년의 한국불교가 도시 속의 중생을 찾아나서는 대전환의 첫 행보를 이 고불문은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9년 11월의 동안거 입재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2월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의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는 야단법석의 난장이었다. 중생의 삶, 중생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동떨어진 수행이 아니라, 그것에 정면으로 부대끼고 끌어안고자 하는 서원에서 시작된 불사(佛事)이자 결사(結社)였다.

결사 현장을 방문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결사대중 아홉 스님의 수행을 통해서 맞이하는 동중정(動中靜), 곧 삶의 현장에서 '불법(佛法) 만나기' 였다. 반면 비닐천막 안에서 수행정진으로 일관한 결사대중 아홉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단법석을 펼치며 결사를 응원하는 도심 대중들이, 정중동(靜中動) 곧 불법(佛法) 가운데서 반드시 끌어안아야 할 '중생 만나기' 였을 것이다.

산중 선방(禪房)이 아니라 도심 속 비닐하우스 천막선방에서 진행된 동안거 결사는, 그래서 최근 600년의 우리 불교 역사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서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가 아니라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첫 걸음이었다.

상월결사는 한국불교의 최근 600년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첫 걸음이었지만, 불교의 역사에서 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첫 번째 행보, 사르나트행을 재현하는 반본환원(返本還原)의 첫 걸음이기도 했다. 불교의 근본정신을 돌이켜 되살리는 것이 전통적인 결사(結社)의 정신인데, 여기에 오롯이 담았다 할 것이다.

지난해 겨울의 동안거 천막결사에서 시작된 '중생을 찾아가는 한국불교'를 선언한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가 일단락되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치러진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그것이다.

10월7일 팔공총림 동화사의 약사여래대불 앞에서 봉행된 입재식으로 시작한 만행결사 자비순례 결사대중의 행보는 순례 20일째인 10월 26일에 500km의 여정을 거쳐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 이르렀다. 두 번째 행보는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의 정신을 현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사대중에 의해 끊임없이 탐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사는 한 번의 이벤트일 수 없다. 결사는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결사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려는 모색이 지속될 때만,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데서 만족하고, 사르나트로부터 시작되는 45년의 교화행을 펼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월결사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정진과 실천의 움직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월결사는 그저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는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를 제약하는 사회 · 환경적으로 악조건이었다. 중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함께 하는데 있어서, 대면과 접촉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그 대면과 접촉을 제약하는 악조건을 제공하였다. 상월선원의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행보는 그러한 악조건을 딛고서 진행된 '중생 순례길' 이며, 중생이 당면하여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하는 자비순례를 목표로 세운 한걸음 한걸음으로 새긴 서원이었다. 일반적인 코로나 방역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코로나 확산의 우려를 불식해야 했고, 마스크를 쓴 채여서 숨이 가빴지만 느리게 느리게 걸어야 했던 500km였다. 뭇 생명 하나하나의 존귀함을 놓치지 않아야 했던 걸음걸음이었기에 무게감이 작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다.

이 여정의 정점은 봉은사 보우당에서 개최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자자회' 이다. 이 자리에서 상월선원 회주인 자승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두두물물 개유불성(頭頭物物 皆有佛性),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세 가지 키워드를 대중에게 제시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중들의 다양한 그러면서 정답에 근사한 답변에 이어, 자승 스님이 내놓은 정답은 "차별 없음"이었다.

필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참대중들이 비슷한 답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500km 순례길의 결사가 낳은 하나의 마음이 뭇 생명들의 "차별없는 고귀함"이었기에. 그래서 "불교의 미래는 차별없는 세상을 사부대중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스님과 동참대중들의 다짐과 서원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불교를 새롭게 그려내었다.

동화사의 약사여래불에서 봉은사의 미륵대불에 이르는 자비순례의 길. 약사여래불은 고통받는 중생,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직시이다. 미륵불의 용화세계는 일체 생명의 고귀함이 온전히 존중받는 차별없는 세상이다. 이제 약사대불에서 미륵대불에 이르는 결사대중의 순례길은, 코로나와 근대 100년 동안 한국사회에 누적되어온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함께 직시하고 함께 끌어안아서 함께 극복해가는 길을 제시하는 중생순례, 생명순례, 부처님 순례가 되었다.

마침 회향하는 날은 10 · 27법난을 당한 바로 그 날이다. 40년 전에는 법난을 만났지만, 40년 후의 오늘에는 중생을 끌어안고 행복공동체를 꿈꾸는 결사의 순례길 끝에서 회향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회향의 자리에서 중생을 일깨우는 내일의 새로운 행보가 시작될 것이다.

중생을 일깨우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다. 중생을 일깨우는 것은 겉만 번드레한 접촉이 아니다. 중생이 부대끼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공감과 소통만이 중생을 일깨우는 지름길일 것이다.

마음으로 접촉하고(mind touch), 마음으로 함께하는(mind-tact) 공동체의 길! 상월결사가 제안한 두 번째 행보, 자비순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교가 제시해야 할 뉴노멀(new normal)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이제 마음으로 닿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 서원의 공동체 시대를 준비하고 동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社 說

## 불교중흥 마중물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따라 걷는 고행의 발은 인욕의 상징이다. 중생의 아픔에 함께 우는 순례단은 자비의 상징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21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장장 511km에 달하는 이 길 위에서 순례단은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 함께 웃고 울며 지낸 21일동안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도반이자 국난극복의 첨병이 됐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석달 간화두 정진했던 9명 스님은 불교 수행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시켰다.

이어 진행된 태화산 순례는 대중 순례와 행선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지난 10월 7일 입재한 만행결사에서 순례단은 매일 30km를 걷고 밤에는 노숙과 다름없는 텐트에서 잠을 자며 씻지도 못하는 고행을 자임했다. 길위에서 중생의 안락을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과 그 제자들처럼 순례단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해서만 매진했다.

이러한 불제자들의 정진이 있었기에 현재의 불교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져 인류의 행복을 이끌 수 있었다.

순례단은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한 삼보사찰 순례와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순례를 기획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당시의 방법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당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보이신 그 숭고한 모습을 따를 때 조금은 우리 사회 문제들의 해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하며 21세기 불교 중흥의 새바람이 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차별금지법, 훼불 막는 길

남양주 수진사에서 빚어진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크다. 방화범은 법당 촛불로 방석에 불을 붙였고 산신각 한 동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신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그야말로 이번 방화사건이 증오범죄의 범주에서 발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방화범이 수진사를 맴돌며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를 외치거나 성경 구절을 외우며 타종의식을 방해하고, 불상에 돌을 던져 훼손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진사 방화사건은 배타적이고 왜곡된 종교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 사람의 정신이상자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훼불의 순간 그 목적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신교계 신자에 의한 훼불 사건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낙서와 방화는 물론, 부처님오신날 장엄한 연등이 훼손되고 사찰 공간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들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기엔 오랜 세월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다.

이제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에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차별로 인한 증오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다시는 사찰에서 참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가 모두 차별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green Ulsan

동전모아 푸른산 만들자!!

탄소흡수림 조성 "생태 방생 법회"

울산 불교환경연대에서는 산림청 양산국유립관리소와 협업으로
지난 2월 화재에 손실된 국유림에 호두나무를 심어 숲 생태계를 복원하려 합니다.
생태 방생은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고 그 숲에 많은 생명체들이 깃들어 살 수 있도록 하는 확장된 방생입니다. 대기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숲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생에 동참해 주세요.

♣ 일시 : 2020년 11월 7일 (토) 10시
♣ 장소 :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60-1번지 (국유림지)
♣ 동참문의 : (052)266-1654, 010-5865-3125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351-1032-5151-33 울산불교환경연대

YouTube 오마이 붓다 〈지구자연을 생각하는 명상절 108배〉








온 생명의 벗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 초기불전 근거 실증적 해설의 〈반야심경〉


저자 황경환

## 책 속의 밑줄 긋기

**5쪽** – 지금 우리가 주로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은 중국의 현장 스님이 서기 649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내용이 첨가되거나 앞뒤가 뒤바뀌거나 중요한 내용이 결락된 부분이 있어, 산스크리트 원전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고대로부터 이 경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해석, 주석이 있었지만 듣는 이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시키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불교 1600년의 장구한 시간 동안, 지나치게 중국 불교를 답습해온 것이 아닌지, 그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스승 고타마 붓다의 정신과 가르침을 어긋나게 이해하고, 그래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지나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21쪽** – 고통 받는 민중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쓰여야 한다. 따라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식의 전달은 고타마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우리도 고통 받는 배달 민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배달말로 고타마의 다르마를 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82쪽** – 무지의 의식 상태에서 다섯-스칸다(오온五蘊)는 '나'이고, 명지의 의식 상태에서 다섯-스칸다는 '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범부 중생과 깨달은 이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범부 중생은 다섯-스칸다가 있고 오취온(五取蘊)이 있지만, 깨달은 이에게는 다섯-스칸다는 있지만 오취온이 없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설서가 나왔다.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사업가 출신 재야불교연구자인 김사철과 황경환의 공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이다. 책은 2000년 출간된 초판의 개정증보판이다.

'반야바라밀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제아제 바라아제' …. 너무나 친숙한 〈반야심경〉의 문구이다. 독송하고 외우기만 하면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에 이르는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두 저자는 〈반야심경〉 '공부법'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대다수 해설서와 달리,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초기 불전에 근거해 부처님의 명상 과정에 맞추어 실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어려운 개념들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개정증보판은 초판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던 '사띠(마음챙김)'와 '프라즈냐(통찰지, 판냐)' 등의 중요한 키워드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반야심경〉 말미에 있는 5개의 만트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초기경전서 인용한 여러 내용을 비롯해 기타 불교 문헌들의 출처를 명확히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반야심경〉의 원문인 산스크리트어와 초기 경전의 빠알리어 및 한자와 한글 발음까지 적재적소에 최대한 활용했다. 그리고 초판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던 내용이 다소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목차와 구성, 각 장의 소제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는 두 저자가 초판 출간 이후 20년 동안 초기불교 교학과 실참 수행의 이론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익히고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반야심경〉 해설서가 많이 출간됐다. 왜 이처럼 많은 해석이 필요했던 것일까? 두 저자는 〈반야심경〉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문 자체의 생소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그리고 붓다의 실증적인 가르침을 벗어난 형이상학적인 설명방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불교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

### 팔정도의 완성이 지혜의 완성

이 책은 대승경전인 〈반야심경〉의 주제가 초기 경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명상 수행법을 전하는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반야심경〉의 핵심을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실천하면 누구나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길은 바른 생활, 바른 명상, 바른 통찰이라는 '고귀한 여덟 겹의 길', 즉 팔정도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부처님이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은 진리는 고 · 집 · 멸 · 도 사성제(四聖諦)이다. 이 중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 즉 고통으로부터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팔정도라 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기만 한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애고 지극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모든 인간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교리의 핵심이자 전부이므로, 대승이든 소승이든, 어떠한 종파라도 그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명제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바른 생활(계), 바른 명상(정), 바른 통찰(혜)을 끊임없이 닦아 팔정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임을 설명한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며, 그러므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김사철 · 황경환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5천8백원

**2000년 초판 나온 개정증보판**
**어려운 개념 재밌고 쉽게 풀어**

**'사띠' 등 키워드 명확히 밝혀**
**말미 5개 만트라 구체적 설명**

**산스크리트어 · 한자 · 한글 활용**
**반복적으로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초판에서의 아쉬움 개정 보완해**

### 다섯 만트라에 담긴 해탈 · 열반의 비밀

〈반야심경〉은 고타마 붓다가 입멸하고 8~9백 년 정도 지난 서기 3~4세기경 찬술되었다. 저자는 〈반야심경〉의 내용은 붓다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은 불제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시대 상황에 맞게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반야심경〉에 대하여 그와 같은 탄생 스토리를 가정하고, 말미의 다섯 만트라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붙였다.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는 '계(가테가테) → 정(파라가테) → 혜(파라상가테) → 해탈(보디) → 해탈지견의 완성(스바하)'이라는 불교 수행의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대신주(신비스러운 만트라), 시대명주(위대한 밝음의 만트라), 시무상주(위 없는 만트라), 시무등등주(비교할 수 없는 만트라)'라고 찬미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야심경〉 말미에 있는 다섯 만트라가 바로 이 경전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어떠한 해설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반야심경〉의 내용 전체는 부처님의 명상 과정에서 체험으로 증명된 깨달음을 순차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말미의 만트라는 이러한 명상 과정과 단계적 깨달음의 경지를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며 습관적으로 외우는 이 주문이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전 과정을 요약한,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부처님 명상법

이 책은 부처님의 명상법과 수행 단계를 〈반야심경〉의 내용과 연계하여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해설서와 다르다. 이를테면 도입부의 '오온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다(조견오온개공)'부터 말미의 다섯 만트라에 이르기까지 〈반야심경〉의 의미를 초기불교의 수행법인 4선8정(四禪八定)의 명상 단계를 통해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는 또한 깨어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릇된 명상'과 도움이 되는 '올바른 명상'의 예를 초기 경전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아무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을 믿고 불사를 하고 신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의 이론을 모르고 명상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수행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반야바라밀다(프라즈냐 파라미타)', 즉 '지혜의 완성'이란 '올바른 명상'을 통해 실상을 통찰(프라즈냐)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지식(프라즈냐)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반야심경〉은 이처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적으로 서술한 경전이라는 것이다.

### '공' 사상의 핵심을 담은 교학서

이 책은 〈반야심경〉의 주제인 '공'과 '반야바라밀다'의 의미를 초기 경전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 · 팔정도와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특히 〈반야심경〉의 내용을 색계 · 무색계 8선정 및 상수멸진정을 포함한 9차제정의 각 단계에 대응시키며 명상과 깨달음의 불가분성을 논증한 점 또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더불어 다소 형이상학적 해설에 그친 다른 불교 해설서와 달리, 〈반야심경〉의 저자로 설정한 '인도 갑돌이'라는 가상의 인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경전의 핵심을 풀어가는 장면도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이러한 참신한 시도로 책은 '공' 사상의 핵심을 담은 교학서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명상 과정과 명상을 통한 깨달음의 내용을 밝혀 놓은 수행지침서이기도 하다.

### 저자 황경환 · 김사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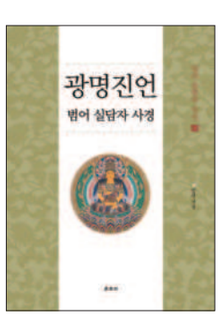
**황경환**은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불교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 철학박사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People To People ·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 외교 단체) 한국본부 총재직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공동 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있다.

**김사철**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불교 수행자이다. 193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응용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휴즈사에서 21년간 근무했다. 1993년 12월 은퇴 후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 창원대학교 · 한국불교연구원 등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연구', '고타마 명상과 깨달음의 과학' 등을 강의했다. 현재 미국에서 고타마 명상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불보살의 가피가 가득한 **범어 사경** 공덕!



**신묘장구대다라니**
범어 실담자 사경



**광명진언**
범어 실담자 사경

망월사본 『진언집』을 저본으로 하여 원음 그대로의 범어 실담자로 복원하였다.

법헌 지음/사륙배판/160쪽/ 값 각 8,000원

방대한 법화경을 1008자로 압축한 약찬게!

**법화경 약찬게** 사경

약찬게를 사경하면 법화경 전체를 사경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한문 사경과 한글음 사경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편집부/사륙배판/96쪽/값 5,000원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불교 A부터 Z까지,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절에 들어서면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건축물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불교교리, 그리고 참선이나 염불 등 수행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이해에 필요한 핵심 코드들을 평이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서술!



도후 지음/국판 변형/296쪽/전면컬러/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잠들던 8세기 사찰 수미단 터 발견

## 日 교토시, 사이지 사지 발굴 결과 발표

**1천년 숨겨졌던 사찰확인**
**토지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사찰은 소실 후 재건못해**
**초유의 발견에 학계 주목**

박영빈 객원기자

1천여년 가까이 규모가 짐작되지 않던 사찰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 일본의 문화수도인 교토를 지키던 사이지(西寺)의 사지발굴 조사에서 발굴팀이 드디어 강당과 수미단 터를 찾아냈다. 10월 22일 일본의 '교토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의 주요언론들은 사이지 발굴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794년 교토가 일본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일본 조정은 수도와 나라를 지키는 관사(官寺)로 교토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토지(東寺)와 사이지(西寺)를 건립했다. 두 사찰이 건립됨에 붙여 교토 시내에는 그 어떤 사찰의 건립도 허용되지 않았다.

토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현존하는 반면, 사이지는 10세기와 13세기 경의 대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지 못했다. 사지는 공원으로 변하여 규모와 구조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기록에서 사이지는 일왕이 주관하는 법회를 개최하고, 출가자들의 승적을 관리하는 등 격이 높은 사찰이었다.

교토시 문화재보호과가 주관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사이지 사지 발굴조사에서 그동안 규모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던 강당터가 불상을 봉안했던 수미단의 터와 함께 발견됐다. 교토시는 22일 오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발굴지 현지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대신해 보도자료와 발굴자료를 공개했다.

발굴된 강당의 토대는 안 길이 25m, 폭 39m, 수미단은 안 길이 6.3m, 폭 17m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토지의 강당에 비해 동서의 폭이 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토시 문화재보호과 측은 "사료에 따르면 토지의 강당이 사이지보다 뒤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굴된 강당의 규모나 기둥간의 간격이 당시 왕궁의 규모와 같은 간격이라는 점에서 매우 격이 높은 건물"이라고 밝혔다. 사이지의 강당은 사이지가 처음 건립되던 당시 가장 먼저 건립된 중심 건물로, 예불과 함께 승가교육이 이루어졌던 복합적인 시설이다.



발굴된 강당터와 수미단터를 설명하는 발굴팀.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이번 발굴결과에 대해 일본고고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교토산업대학의 스즈키 히사오 교수는 "토지의 강당은 수미단에 21구의 불상을 모신 입체만다라가 봉안되어 있기에 수미단의 규모가 큰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이지의 수미단도 예상외로 큰 크기"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발굴된 수미단의 크기에서 추정해 볼 때, 사이지의 강당도 최소한 삼존상이나 사천왕상을 함께 모셨을 것이다. 아마 당시 당에서 들어온 선진불교였던 진언밀교의 영향으로 하나의 세계관을 수미단 위에 건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긴키대학의 아미 노부야 교수는 "사이지가 토지에 비해 먼저 완공되었고, 승적을 관리하는 등의 관청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이지는 당시 기존불교의 주류였던 현교(顯教)를 중심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미 교수는 "교토의 중심대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었다는 점과 두 사찰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쪽을 밀교, 서쪽을 현교로 하는 당시의 종교정책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견으로 사이지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약 105평방미터의 사지보다, 더 큰 규모로 조영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 발굴팀은 기록상 존재하는 사이지의 오층탑 터와 요사채 터 등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다.

# 인도 최하위계층 230명, 불교 개종

## 개종운동 64주년 기념
## "소녀 살해사건에 분노"


불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이 BR암베드카르 박사의 종손 레이라탄 암베드카르와 스님들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출처=theprint.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달리트(Dalit) 230명이 카스트제도에 반발하며 불교로 개종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카스트제도의 특권층 남성들로부터 강간·살해당한 달리트 소녀의 죽음에 분노하며 개종을 결심해 이목을 끌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의 10월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의 가지바드시(市)에서 230명 이상의 달리트가 불교로 개종했다.

이날 개종식은 1956년 정치·사회 개혁가 BR암베드카르 박사에 의해 최초로 시작된 개종운동의 6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암베드카르 박사의 종손 레이라탄 암베드카르(Rairatan Ambedkar)도 참석했다.

개종식에 참여한 파완 발미키(27)는 가지바드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입사 지원했던 일화를 털어놓으며 "달리트로서 조회되는 소위 '예약 카스트'로 불리는 인도의 단체와 연관된 성(姓) 때문에 청소부 업무만 제안받았다. 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 단체는 공식적으로 역사·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했다.

그는 "나는 청소부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종식은 지난 9월 14일 뉴델리와 아그라 사이에 위치한 하트라스 출신 19세 달리트 소녀 마니샤 발미키가 상위 카스트 계층의 남성 4명으로부터 강간 후 살해당한 사건에 항의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이 사건은 카스트에 기반한 잔학 행위로 전국적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 당국 경찰은 마니샤 발미키의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시신을 화장해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개종식에 참여한 인더 람(65)은 "19세의 달리트 소녀가 성폭행도 모자라 살해까지 당한 일을 보면서 개종하기로 결심했다"며 "불교에는 카스트가 없다. 불교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브라질 상파울로시, '불교 초조의 날' 제정

## 100년전 상륙한 일본인 스님 기려
## 10월 18일 공인기념식
## 이바라키 닛스이 스님
## 50주년 기념법요 겸해


공인 기념식에서 공인서를 전달하는 노무라 상파울로 시의원. 사진출처=닛케이 신문

브라질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일본인 스님을 기려, 상파울로시가 기념일을 제정했다. 10월 20일 일본의 '닛케이 신문'은 현지에서 열린 기념일 공인식의 모습을 보도했다.

지난 10월 18일, 상파울로시 빌라 마리아나구에 소재한 닛쿄지(日教寺)에선 '브라질 불교 초조(初祖)의 날(Dia do Padroeiro do Budismo no Brasil)' 제정을 공인하는 공인기념식이 봉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기념일의 주인공인 이바라키 닛스이 스님(1886-1970)의 50주기 기념법요식과 함께 진행됐다. 닛스이 스님은 법화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본문불립종(本門佛立宗) 스님으로 22세에 브라질에 입국 후 63년간 입적에 들 때까지 전법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태평양을 넘어선 땅에 불법을 전하라는 은사의 부촉을 받고 브라질 최초이민자인 781인의 일본인들 중 한 명으로 브라질에 도착했다. 1908년 6월 18일 브라질 산토스 항에 입항한 스님이 하선자 명부의 직업란에 '승려'라고 쓴 것이 브라질에 최초로 상륙한 불교 출가자의 증거로 전하고 있다.

스님은 생전 브라질 각 지역에 7곳의 사찰을 건립하고 제자들과 신도를 양성했다. 또 뒤따라 포교를 위해 입국한 일본인 스님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브라질에 불교가 전해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닛스이 스님의 제자들과 현지불교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상파울로시는 닛스이 스님의 업적과 입국기록 등을 근거로 브라질 불교의 '초조(Padroeiro)'라는 칭호를 공인했다. 브라질 역사교과서에서도 불교의 첫 전래자로 닛스이 스님이 게재될 예정이다.

칭호 공인이라는 결과에 힘입어 일본이주민의 후손인 노무라 아우렐리오 시의원이 상파울로 시의회에 기념일 제정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 지난 1일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기념일은 스님이 최초로 상륙하고 예불을 모셨던 6월 18일로 정했으며 이름은 '브라질 불교 초조의 날'로 제정됐다. 시의회 측은 "닛스이 스님은 생전 희생적인 기여로 브라질에 다양하게 공헌을 세웠다.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결의안을 가결한다. 이번 기념일은 브라질 불교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념식에선 결의안을 상정한 노무라 시의원이 직접 본문불립종 일본교구장인 다카사키 닛켄 스님에게 기념일 공인 인증서를 전달했다. 기념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 캄 불교계, 최악 홍수피해 속 자비행

## 시아누트 라자 불교대학
## 피해가구에 물품 등 지원


구호활동 중인 불교계. 사진출처=소베치아 스님 페이스북.

캄보디아가 약 1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불교계가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에 나섰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10월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불교계는 프레아 시아누크 라자 불교대학(the Preah Sihanouk Raja Buddhist University)의 바탐방 분교 총장인 소베치아 스님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베치아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도 평가된다.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최대 쌀 생산지로 꼽힌다. 때문에 바탐방 지역의 침수 피해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 지역의 쌀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베치아 스님은 "우리의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지난 이틀(21~22일) 동안 61가구를 원조했고, 앞으로 80여 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 가톨릭계와의 협력 계획도 밝히면서 "종교계가 힘을 합쳐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불교계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며 "우리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교 단체로서 인종·피부색·신념·신앙 등에 근거해 차별치 않고 지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 시대를 담은 불화 '감로도'



조성금의
##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 ㉑ 감로도의 기원

지난 연재에서 인간의 윤리와 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을 발휘한 불교 경전이 〈부모은중경〉이며, 이를 그림으로 도해한 것이 '부모은중경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효와 조상숭배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의식행위를 꼽는다면 아마도 '수륙재(水陸齋)'일 것이다.

수륙재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행해진 의식으로, 이때 봉안하는 불화라고 하여 수륙화(水陸畵), 수륙회도(水陸會圖)가 있다. 또한 아귀(餓鬼)에게 감로(甘露, amrta, 阿密哩多)를 베풀어 극락 왕생케 한다는 의미에서 시아귀도(施餓鬼圖), 감로도(甘露圖)라고 하며, 〈우란분경〉의 내용을 도해했다고 하여 우란분경변상도라고 한다. 영가천도를 행하는 하단에 봉안돼 영단탱(靈壇幀)이라고 하거나 감로여래왕을 비롯한 칠여래(七如來)와 여러 불보살이 감로법을 내려 영혼 천도를 이끌고 있어 감로왕도(甘露王圖)라고도 한다.

먼저 수륙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륙회는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양나라 무제가 보지화상(寶誌和尙)의 조언을 듣고 망혼(亡魂)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극락왕생과 성불을 위해서 505년에 진강 금산사(鎭江 金山寺)에서 시작한 법회였다.

그 이후 당대를 거쳐 오대북송, 원대, 명대, 청대를 거쳐 중국 각지로 전파되면서 그림에 도상이 추가되거나 사회상을 반영하며 변화되었다. 돈황 막고굴 17굴에서 출토된 중당시기(781-848)의 한 발원문에는 "도량을 만들어 여러 부처들을 불러 망자의 혼을 축원하기 위한 재를 연다"는 기록이 있어, 이미 8세기 경에는 중국 내륙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까지도 수륙재가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의 수륙회와 관련된 그림으로 이른 사례가 금대(金代) 1158년에 그려진 산서 번치현 암산사(山西 繁峙 岩山寺)의 정전벽 벽화로 알려져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형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쉽게도 원대(1271-1368)의 산서 직산 청룡사(稷山 靑龍寺)의 후불전 벽화와 하북 석가장 비로사(河北 石家莊 毘盧寺)의 후불전 벽화를 통해서 초기 수륙회도의 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수륙회도들은 거대한 전각의 삼면에 적게는 120폭에서 많게는 200여 폭에 이를 정도의 장황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유불선(儒佛仙)의 거의 모든 신들과 호법신중, 왕실 인물, 문무백관, 승려, 다양한 계층의 속인들, 환난의 다양한 장면, 굶주린 아귀들 등을 도해하고 있어 조선의 불화처럼 하나의 장면에 담기에는 결코 불가능하다.

중국의 수륙재가 한반도로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라 진흥왕 33년 572년에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위해 7일 동안 팔관회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사실 수륙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문헌에 기록된 가장 이른 사례의 수륙재는 고려 광종(光宗) 19년 귀법사(歸法寺)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의 수륙재는 팔관회나 연등회처럼 중요한 불교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외로운 혼을 천도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심을 수습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망자 극락왕생 기원한 수륙재**
**中 양무제가 처음으로 시작해**
**齋서 활용한 도상인 '수륙회도'**
**조선시대엔 '감로도' 도상 정착**
**하단에 당시 시대상 반영 '눈길'**



조선 전기인 1580년에 조성된 '감로도'. 하단에는 마차와 말에 깔려 죽는 장면, 호랑이에 물려 죽는 장면, 머리가 잘려 죽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륙재를 거행할 때 사용되는 그림인 '감로도'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제작 때부터 야외에서 시행되는 수륙재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16년 1434년 4월 11일자에는 "임자년(1432) 봄에 크게 무차지회(無遮之會)를 열었다. 승려들이 구름같이 모여 한강가에서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진행되었다. 매우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단을 차려 깃발과 일산이 해를 가리고, 종과 북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그림으로 천당과 지옥의 반야(般若)를 그리고, 생사와 화복의 응보를 보여주니, 이에 귀천과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모두가 보고 듣고자 모여 성안은 텅 비었고 관문과 나루는 길이 막혀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는 수륙재를 위해서 야외에 그림을 걸어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수륙재는 정부가 주관하여 진관사(津寬寺)에서 거행하는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와 민간에서 거행하는 수륙재의 두 종류가 있었으며, 국행수륙재가 폐지된 후에도 민간에서는 왕실, 양반층, 서민층에 의해서 근대기까지도 수륙재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의 감로도가 유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림 하단의 화기를 통해 조선 전기인 1580년에 제작된 감로도를 현존 최고의 감로도로 꼽을 수 있다. 화면은 상중하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단은 아미타삼존과 일곱 여래(다보여래 · 보승여래 · 묘색신여래 · 광박신여래 · 이포외여래 · 감로왕여래 · 아미타여래)가 지옥의 중생들을 맞이하러 오는 장면과 인로보살(引路菩薩)이 바람에 휘날리는 오색번을 들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중단은 실제로 거행되는 천도재를 화면에 옮겨놓은 것으로, 화려한 공양물이 놓인 시식단(施食壇)과 천인들, 왕후장상(王侯將相), 상복을 입은 상주, 법고 · 호적 · 광쇠를 치는 의식승과 경전을 외우는 송경승들이 의례를 행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감로도의 수혜자 혹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2구의 아귀가 합장을 취한 모습으로 시식단의 좌측에 커다랗게 묘사되어 있다.

하단은 물에 빠진 사람과 배를 타고 있는 망자, 춤추는 걸립패, 마차와 말에 깔려 죽는 장면, 호랑이에 물려 죽는 장면, 머리가 잘려 죽는 장면, 형벌을 받다 죽는 장면, 도적에 목숨을 잃는 장면, 돌에 깔려 죽는 장면 등 죽음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감로도는 20세기 초 1939년에 제작된 흥천사 감로도에 이르기까지 상단의 여래 · 중단의 의식행위와 아귀 · 하단의 망혼들과 환난 장면이 묘사된 화면의 삼단구성이 고정화되어 계승됐고, 다만 시대마다 하단에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도상들이 표현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흥천사의 감로도의 하단은 독립된 직사각의 공간에 서구 근대화의 상징인 자동차, 터널을 지나는 기차, 서커스 장면, 양장을 입은 신사와 숙녀, 서양식 건물과 간판, 전차, 우체국, 대장간, 전신주, 재판하는 모습, 말을 탄 일본 순사와 노역하는 조선인,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교복을 입은 학생 등 한국의 근대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흥천사 감로도를 포함한 대략 50여 점의 조선의 감로도는 단순히 전통도상의 계승에 그치지 않고, 하단 부분에 묘사된 육도 중생의 다양한 환란과 죽음 장면에 당시의 시대상을 꾸준히 반영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감로도'라는 명칭과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감로도는 여타의 불화처럼 특정한 소의 경전을 근거로 하여 제작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 감로도를 봉안하여 수륙재를 지냈을 당시에는 수륙회에 거는 의식용으로서만 인식하여, 그림의 화기에 명칭을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짐작건대 화면을 구성하고 도상을 그려 넣은 화승들은 단지 영가천도를 위한 수륙재에 사용되는 불화라고만 인식하였을 것이다. 감로도를 보면 어린 시절 사진관에서 본 회갑 잔치상을 그린 커다란 배경 그림이 떠오르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수륙화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기에 시식문화, 시식의례, 다양한 신앙, 현실의 생활상 등이 결합 되어 중국과 일본에 없는 한국 불화만의 상중하단 구성의 독특한 화면과 도상들이 탄생된 것으로 생각한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중급과정 (6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 좋은 정치인과 국민 매개 '연기'



윤성식의
## 붓다의 정치학
### ㉑ 정치의식과 불교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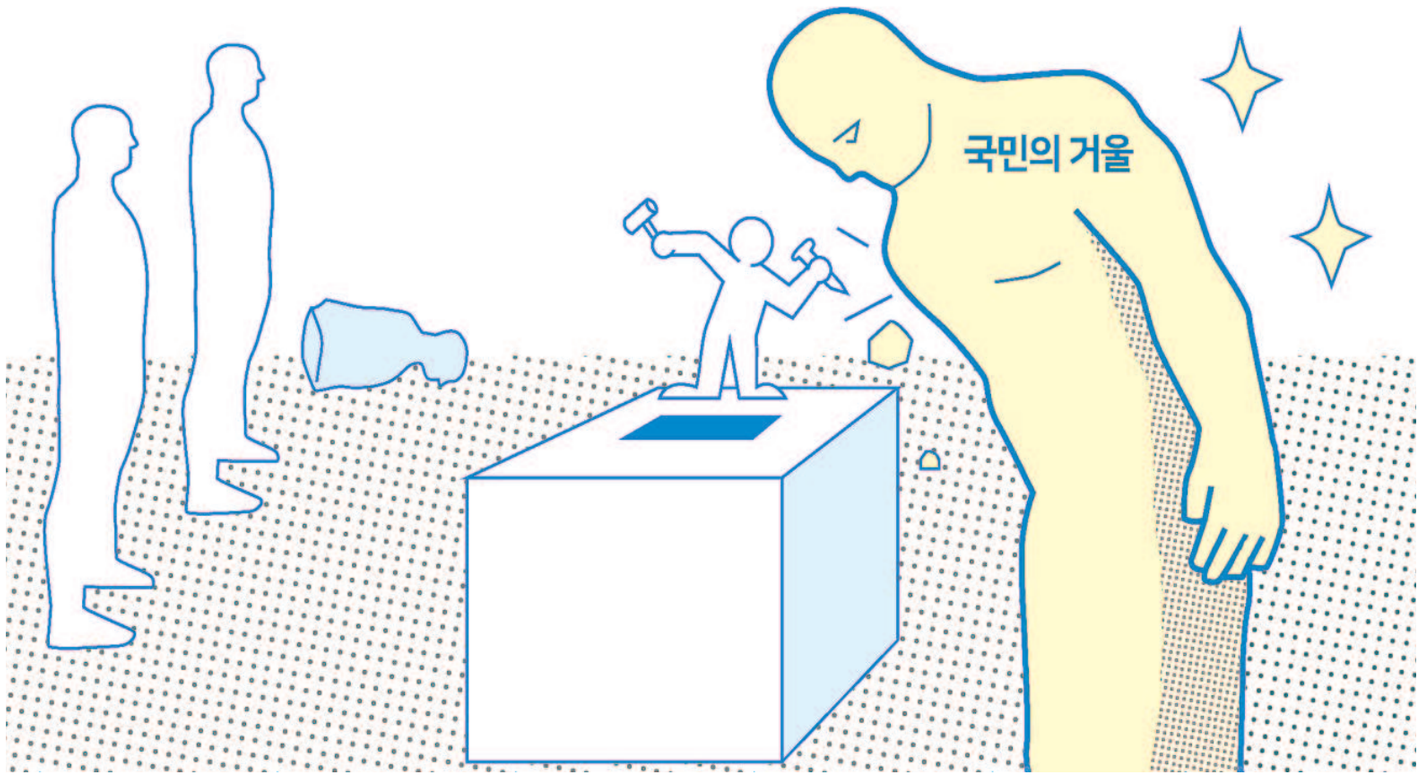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과거 독재시절엔 사회주의 성향의 서적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았다. 칼 마르크스의 저서는 가장 대표적인 불온서적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유학생이 해외에서 귀국하면서 막스 베버의 저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다. 공항에서 짐검사를 하다가 막스 베버의 책을 발견하곤 불온서적이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고 한다. 칼 마르크스를 칼 맑스로 번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막스 베버와 혼동을 일으킨 것이다.

막스 베버는 사회과학의 천재로 불리운다. 여러 분야에 대한 저술로 이름 높고 지금도 후세 학자에 의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연구되는 학자다. 그는 이 분야 저 분야 섭렵하고 손을 대다 보니 항상 수준 높은 저술만을 내지는 않았다. 불교에 관한 막스 베버의 연구는 대표적인 부실 연구다. 막스 베버는 불교를 세상에서 도피하는 허무주의적 소극적 종교로 오해한다. 그는 불교를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종교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마 불교의 친자본, 친시장적인 경전의 구절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워낙 불교경전이 방대하다보니 그가 치우치게 독서한 것이 드러난다. 그의 관점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오늘날 한국 불교는 그의 잘못된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다. 역설적이지 않은가?

막스 베버의 유명한 저서 중 하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혹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로 번역되기도 하는 얇은 책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어야 한다는 저서로 유명하다. 막스 베버는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여 현실 정치에 도전 했는데 낙선하였기에 정치가로서는 실패했다.

막스 베버의 책을 읽으면서 유난히 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다.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 라는 구절이다. 그래서인가? 정치의 세계는 얼마나 한심하고 혼탁한가? 선한 정치인은 귀하고 악한 정치인은 넘쳐 난다. 선한 정치인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법칙에 의해 도태되기 쉽다.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사후에 굿플레이스와 배드플레이스에 간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배드플레이스에 가는 사람을 나열하는데 피카소 등 모든 예술가, 링컨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라는 재미 있는 대사가 있었다. 거의 모든 정치인은 과연 지옥에 갈까?

선거를 할 때마다 국민은 '누가 덜 나쁜가' 를 선택하면서 한탄한다. 누가 더 좋은 정치인인가를 고민하지 못하고 누가 덜 나쁜가를 고민해야 하다니…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부하 직원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힘들게 하던 직장 상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상사가 부임했을 때 우리는 곧잘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실망 한다. 곳곳에 사기꾼이 넘쳐나고 순박했던 시골마저 돈에 의해 배반을 밥 먹듯한다. 돈을 주고 받는 거래는 속임수와 사기꾼의 전쟁터이다. 우리도 알고 보면 정치인을 선택할 때처럼 사회생활을 할 때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한다.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구관이 더 낫다고 위로한다. 더 큰 사기를 당하면 '그래도 옛날 그놈은 양심적으로 해 먹은거네' 라고 말한다. 어차피 속여 먹는거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한다. 어찌 업자 뿐인가? 잔금 떼먹는 고객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

다만 정치의 세계는 일반인의 세계보다 만사가 훨씬 더 증폭된다. 정치인은 보다 극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더 억지를 부리며 더 안면 몰수를 한다. 보통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쁜 짓을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할 것은 정치인은 국민의 거울이다. 우리가 그들을 괴물로 만든다.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창작물이다. 그들이 뱉어내는 가짜뉴스에 열광하는 것도 우리다.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바치면 그들은 멋지게 써먹는다. 그들이 억지를 부리고 사실을 비틀고 왜곡할 때 후련해 하는 것도 우리다. 평균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그들은 우리를 조종할 줄 알기 때문이다.

연기의 세계에서 '나쁜 정치인과 좋은 국민의 조합' 은 없다.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들어와 있고, 국민에게는 정치인이 들어와 있다. 정치인이 국민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국민 또한 정치인을 떠날 수 없다. 어찌 나쁜 정치인을 선발하는 좋은 국민이 있을 수 있나? 나쁜 정치인은 끊임없이 국민을 부추기고 혐오를 유발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을 조종할까 밤낮으로 궁리한다. 국민은 나쁜 정치인의 거짓말과 억지에 환호하고 다시 선거 때가 되면 그들을 뽑는다.

> **차악을 뽑는 현행 민주주의**
> **국민의식의 현재 주소 반영**
> **좋은 정치인 국민이 만들어**
> **긍정 에너지로 정치 변화를**

흔히 시장이 더 좋다고 한다. 시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시장은 경쟁이 있기 때문이며 비효율적 기업은 퇴출되기 때문이다. 선거가 '누가 누가 덜 나쁜가' 의 선택이라면 경쟁은 있는 셈이다. '누가 누가 더 좋은가' 의 경쟁이 아니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누가 누가 덜 나쁜가와 누가 누가 더 좋은가의 경쟁은 종이 한장 차이다. 동일한 경쟁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누가 누가 더 잘하는가의 싸움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누가 누가 덜 나쁜가의 싸움이라고 본다.

자기가 지지하는 나쁜 정치인을 교묘하게 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이 양비론이다. 양비론이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양비론은 양심적인 양비론과 자신마저 속이는 양비론이 있다. 알고 보면 나쁜 정치인과 좋은 정치인의 싸움이지만 교묘하게 더 나쁜 정치인과 덜 나쁜 정치인의 싸움으로 상황을 변질시킨다. 그 다음에는 '그놈이 그놈이야' 라는 동일화 작업을 거친다. 둘 다 똑같다는 합리화를 하면 자신이 속으로 지지하는 더 나쁜 정치인을 선택할 때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낀다. 인간은 원래 뻔한 거짓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속이고 나중에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신봉한다.

가까이서 접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정치인도 많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정치를 하면 죽일 놈의 대열에 들어간다. 아무리 형편 없는 사람도 성직자가 되면 기본 점수는 얻는다. 정치만큼 어려운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는 힘들다.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다른게 정치다. 한 번 해보면 알게 된다.

미국에서 공공부문의 유능한 리더가 민간부문으로 옮겨간 경우와 민간부문의 유능한 리더가 공공부문으로 옮겨간 경우를 비교해서 누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조사했다.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옮겨간 리더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나빴다. 정치는 역시 쉽지 않다. 정치에 불만이 많다보니 우리는 '기업처럼 경영하라' '기업으로부터 배우자'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 등을 말하지만 공공부문을 기업처럼 경영하다간 큰 일 난다.

미국 센트루이스시의 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민간경영인 출신인데 '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 라는 선거공약을 걸고 돌풍을 일으켰다. 항상 정치에 불만인 유권자는 이런 구호에 솔깃하기 마련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 유명해져서 백악관에 초청도 받을 정도였는데 퇴임 후 고백을 했다.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라고.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은 잘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들은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불만에 찬 국민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으로 보인다.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힘든 것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뇌의 용량을 초과하여 미쳐버리고 만다. 인간은 선택적으로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모두 망각한다. 이는 축복이며 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기억이 불완전한 국민은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약속을 뒤집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이라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쉽게 조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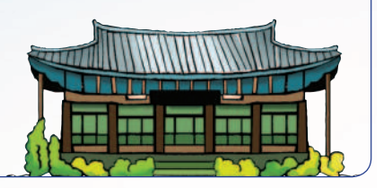
정치는 민간부문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일찍부터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쌓는게 좋다. 혜성처럼 나타나는 선진국의 젊은 정치인은 사실 학창시절부터 정치경험을 쌓은 노련한 정치인인 경우가 많다. 미국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부터 이미 교내에서 리더로서 훈련을 쌓고 시장, 시의회의원, 주하원의원, 주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연방상원의원, 주지사 등의 경험을 통해 정치인으로 성장한다.

워낙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크다보니 정치인 출신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여 수혈 받으면 국민이 환호한다. 2020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인재 영입을 보면 하나 같이 나름 괜찮은 인재들인데 한결 같은 공통점은 정치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런 점이 인기를 끄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정말 걱정스러운 인재들이다. 아무리 죽일 놈 죽일 놈하지만 정치는 경험을 쌓지 않으면 좋은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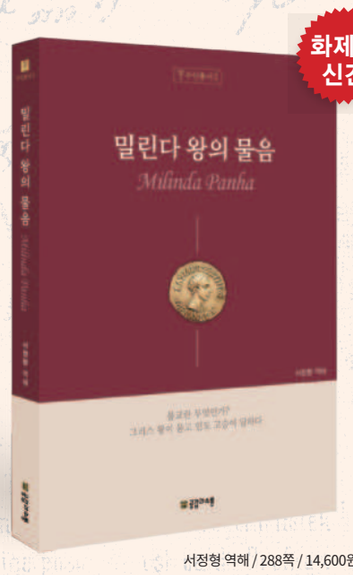
아무리 정치가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혜성처럼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줄 비정치인 출신 수퍼맨은 영화 속 이야기에 불과하다. 말로는 좋은 정치인을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력 있는 정치인, 무언가 끌리는 정치인을 원한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인기가 좋듯이 국민은 나쁜 정치인에 속아 넘어간다. 선거 때마다 마치 무슨 쇼를 하듯, 마치 이벤트를 기획하듯 민간부문에서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면 젊은 시절부터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는 인재는 아예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좋은 정치인은 젊을 때부터 키워야한다. 정치에 대해 고민도 제대로 안해본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될리는 만무하다.

진실이란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에 쇼를 하는 정치인이 득세한다. 성실해서 지루하게 만드는 정치인보다는 이벤트를 벌리며 사람을 현혹하는 배우 같은 정치인에게 열광한다. 정치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정치다. 국민이 정치의 긍정적 에너지를 포기하면 정치는 정치인만의 리그가 된다. 덜 나쁜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 절망하기 싫으면 유권자도 보다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도 정치인도 세상도 바뀌어야 한다. 이게 연기법의 지혜다.

〈고려대 명예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 ‘융합 불교’ 지향한 명나라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㉑ 운서 주굉



중국 절강성 항주 운서산에 있는 운서주굉 선사의 묘. 묘지명에 ‘명 굉불혜연지대사(明 宏佛慧蓮池大師)’라고 쓰여 있다.

명나라는 14세기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순수 한족이 세운 왕조이다. 1367년 안휘성 출신의 주원장은 어려서 전염병과 가난으로 가족을 모두 여의고, 각황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였다. 주원장은 나라를 ‘명(明)’이라고 칭했다. 명나라는 한족의 유교 문화를 회복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였다. 태조 주원장(1328~1398)은 불교에 호의적이며, 불교를 보호했다. 명대는 교종이 발전했으며, 선종(임제종)과 정토종이 크게 발전했다.

명나라에 훌륭한 4대 고승이 있다. 운서주굉 · 감산덕청 · 우익지욱 · 자백진가이다. 이중 명대를 대표하는 선사를 한명 꼽으면 단연코 운서주굉이다.

### 주굉의 행적

운서주굉(雲棲袾宏, 1532~1612)은 절강성 항주(杭州) 출신이다. 자는 불혜(佛慧)이고 호는 연지(蓮池) · 운서(雲棲)이다. 연지대사(運池大師)라고도 한다. 7세에 소학에 들어갔고, 9세에는 경서를 공부해 16세까지 익혔는데,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17세에 학문을 하여 덕행과 문장 또한 뛰어나 유생에 선발되어 무리 중에 지혜가 제일이었으나 과거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뜻이 출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굉은 20세에 장 씨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도 했고, 결혼을 두 번하기도 하였다. 2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30세에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주굉은 매우 슬피 울며 ‘어버이의 은혜는 망극하다. 내가 이 은혜를 갚으려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했다. 1565년 섣달 그믐날, 주굉은 부인 탕(湯) 씨와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은애(恩愛)란 허망한 것이요, 생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이가 없소. 나는 이 집을 떠나 출가하려고 하니, 그대는 스스로 갈 길을 정하십시오.”

부인은 주굉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떠나십시오. 저도 출가할 예정입니다.”

부인 탕씨는 이생의 마지막 인연이 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산을 정리한 뒤 출가하였다. 그녀는 법명을 주금(袾錦)이라고 했으며, 효의암(孝義庵)에 살았다. 행실이 청정하고 고귀하여 ‘보살 비구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금 스님은 주굉보다 한해 먼저 입적하였다.

주굉은 31세에 오대산 무문성천에게 출가하여 변융에게 화엄을 배웠다. 이후 여러 지역을 발초첨풍한 뒤에 소암 덕보(1512~1581)의 법을 이었다. 선사는 동창이란 곳을 지나다 초루의 법고 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았다. 1571년 37세 때, 항주의 운서(雲棲)에 연지사(蓮池寺)를 짓고 살면서 제자 교육과 저술에 전념했다.

선사는 계율을 중시해 〈선원청규〉를 제작해 도량을 정비하였다. 주굉은 철저하게 계율을 강조했고, 늙고 병든 승려가 거처하는 곳과 행각승을 위한 거처를 분리했다.

주굉은 1615년에 열반했는데, 세수는 81세 승랍은 50세였다. 저서로는 〈능엄경〉 〈아미타경〉 〈범망경〉 등 여러 경전을 주석했으며, 〈치문숭행록〉 〈자지록〉 〈죽창수필〉 〈선관책진(禪關策進)〉 등이 있다. 주굉에게 유발제자가 많은데, 이들 중 2명은 〈명사(明史)〉와 〈열전(列傳)〉에 전기가 실려 있는 관리이고, 9명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진사이다. 왕양명의 제자 가운데 나여방(羅汝芳, 1515~1588)은 선을 하였고, 또 한 제자는 출가해 주굉의 제자가 되었다.

〈석감계고략속집〉에서 환륜은 주굉에 대해 평하기를 “살아서는 복록이 융중하였고, 입적한 뒤에는 오랫동안 덕이 면면이 흘러왔다”라고 하였다. 선사 입적 후에 왕우춘은 대사의 저서들을 모아서 〈운서법휘(雲棲法彙)〉 34권을 한데 묶어 간행하였다.

### 선 · 경전에 입각한 사상

주굉은 경전인 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을 우위에 두었다. 주굉의 저서를 통해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늙어간다. 괜찮은 취미는 골동품 모으기 · 거문고와 바둑 두기 · 시 읊기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괜찮은 것은 독서이고, 독서보다 더 좋은 취미는 경전 독송이다. 그런데 독경보다 더 괜찮은 취미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마음이 청정해지는 경지에 이르는 일이 세간 · 출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다.”**

–〈죽창수필〉中

**잇달아 부모를 여의고 출가결심**
**부인도 출가… ‘주금’ 법명 활동**
**계율 중시 ‘선원청규’ 정비나서**
**방생결사 등 대중포교에도 힘써**
**선정 · 선교일치 등 융합사상 강조**

주굉은 교와 선 가운데서 마음 닦는 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굉의 선은 반드시 경론에 입각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조사의 문답, 기연(機緣)으로 생사(生死)를 결단코 끊는 것이 공안이다. 문답 가운데 긴요한 일구를 화두라고 하는데, ‘일귀하처(一歸何處)’, ‘왜 무라고 하는가(因甚道無)’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念佛是誰) 등이다. 1700 공안이 모두 이와 같다.”**

–〈선관책진〉中

선사는 교보다 선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굉은 당시 선이 쇠락한 원인은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할이나 방 등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다.

**“참선자는 교외별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교를 무시한 참선은 삿된 인因을 낳고, 교를 무시한 깨달음은 삿된 견해를 일으킨다.”**

**“간경은 반드시 폭이 넓어야 비로소 융관하여 편집에 빠지지 않게 된다. 대개 경은 이곳에서 건립하면 저곳에서 소탕하고, 이곳에서 소탕하면 저곳에서 건립하여 어떤 상황과 수준을 따랐을 뿐, 일정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책진〉中

‘건립’은 긍정을 의미하며, ‘소탕’은 부정을 의미한다. 폭넓게 배우면서 한 경전에 빠지지 말고, 경전 내용을 서로 서로 맞춰 보라는 것이다.

### 정토사상 및 선정(禪淨) 일치

주굉의 정토사상을 먼저 보자.

**“만약 수행자가 계율에 철저하다면, 계율은 부처님께서 정한 것이니, 당연히 염불도 좋아하게 될 것이요, 혹 어떤 수행자가 경전을 본다면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기꺼이 염불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행자가 참선을 한다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기꺼이 염불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운서유고〉 ‘보권념불왕생정토’

〈아미타경〉을 풀이한 〈미타경소초(彌陀經疏抄)〉에서는 “아미타불 명호 부르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이고, 아미타불 명호만 부른다면 온갖 수행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굉은 염불을 강조하며, 염불수행법이 계정혜戒定慧 3학三學을 두루 포함하고 6바라밀을 빠짐없이 갖춘 법문이라고까지 하였다. 주굉은 정토가 필요 없다고 하는 선자는 ‘오만불손한 이들’이라고 힐난하며, 이들은 불법을 부정하지 않지만 불법을 수용하는 태도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보았다. 훗날 우익 지욱도 염불정토를 ‘최극원돈법문’이라고 하며 주된 수행법으로 삼았는데, 이는 주굉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선정일치 사상을 보자. 주굉은 〈아미타경소초〉를 통해 선과 염불을 동일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받지 않으며, 최대한 몰입되어 불성을 깨닫는 실천이며, 오히려 염불선이 다른 수행법보다 수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롯이 선만으로 해탈하기 힘들지만 염불수행을 곁들이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굉은 사람들이 선에 큰 비중을 두면, 불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염불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이란 정토의 선을 말하고, 정토란 선의 정토를 가리킨다(禪的淨土 淨土的禪)”고 하였다. 또 염불로 아미타불에 가까이 접근할 때,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결사조직 구성 및 활동

명나라 말기는 여러 분야에서 결사가 있었다. 이때 불교 결사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주굉은 거사들을 불교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유학과 불교의 합일점을 찾으며,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거사들에게 수행론으로 공과표를 실천하라고 하였다. 일생동안 공과(功過)에 따라 사람 운명이 결정된다는 도교의 공과격(功過格)을 불교에서 차용한 것이다. 원요범(袁了凡, 1533~1606)은 〈음즐록〉에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 · 악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을 실천해 공덕을 쌓으라는 뜻이지만, 이런 공덕으로 인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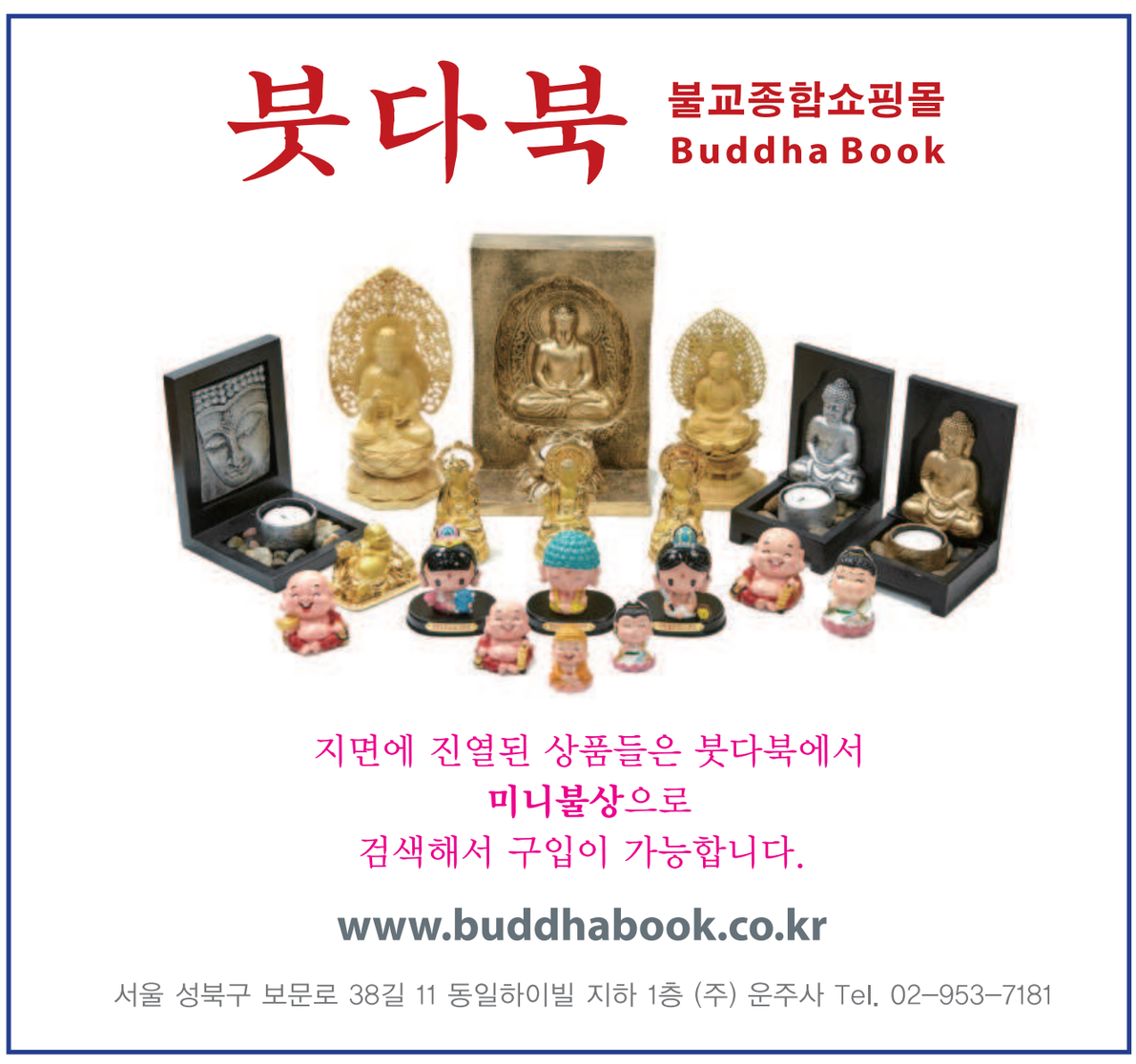
주굉은 〈음즐록〉을 응용해 〈자지록(自知錄)〉이라는 저서를 통해 신도들에게 실제 적용토록 하였다. △충실하고 독실한 행위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행위 △삼보에 이로운 행위 △자잘한 선한 행위들을 선한 공덕으로 보았고, 이에 반대되는 행위로는 과(過)로 분류되었다. 즉 선행에 행하는 공(功)은 201가지, 악행인 과는 279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함께 주굉은 방생결사 방생회를 결집하였다. 선사는 폭력적인 정치상황, 그리고 사치와 더불어 살생이 증가하던 사회상황에 반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대부들에게 불교의 자비를 제시하며, 전사회적인 방생결사 운동에 나섰다. 이 방생결사에 황궁의 황비가 관심을 갖고 물어올 정도였다.

이에 주굉은 제자들과 더불어 1580년에 ‘상방회(上方會)’라는 이름으로 방생결사를 조직했다. 상방회 구성원들은 폐사 두 곳을 매입해 방생지(放生池)를 만들었다. 방생 집회에는 사대부들을 비롯해 여러 각계 각층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종종 무차대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방생결사에는 종교를 넘어 수많은 이들이 모였고, 사회 운동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주굉 사상은 한 마디로 화쟁 · 융합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법화경〉이 ‘삼승방편 일승진실’을 내세우며, 성문 · 연각을 인정하면서 일승을 지향하듯, 선사도 염불 · 선 · 간경 등 각각의 수행을 인정하며 중시하였다. 〈선관책진〉에서는 주굉은 ‘공부는 오로지 한가지에만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에 국집(局執)하는 것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선과 정토의 일치, 교와 선의 일치, 불교와 도교 · 유교 일치 등을 강조하였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담박한 茶 생활로 차문화 주도



박동춘의
##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 ㉑ 수행승의 차 생활

고려시대 차문화는 사찰과 수행 승려들이 주도했던 문화였다. 명전(茗戰)은 사찰에서 만든 차를 품평하는 자리였고 왕사(王師)나 국사(國師)가 주석한 사찰이면 왕이 하사한 극품의 차를 소개하는 다회(茶會)였으니 이보다 아름답고 문끼 넘치는 아회(雅會)는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전에 초청된 인사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이거나 권력의 실세, 그리고 주관한 사찰의 승려들과 교유하는 인사들이 초청되어 자리를 빛냈으니 다회를 주관한 승원이 최고의 문화 공간이라는 말은 이런 연유에서다. 더구나 수행 승려의 차 생활은 담박 · 소쇄하여 차의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낸 그룹이다. 따라서 고려 후기 승려 무의자 혜심(無衣子慧諶 1178~1234)이 눈(雪)으로 차를 끓였던 정취를 담담하게 그린 '방장실의 선사를 모시고 눈으로 차를 다리며(陪先師丈室煮雪茶筵)' 는 눈에 띄는 다시(茶詩)라 하겠다.

특히 백설은 맑고 깨끗함을 상징한다. 그러니 청결하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차의 가치는 새하얀 눈과 잘 어울려 고상한 차의 맛을 부각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백설을 모아 점다(點茶)하는 정황을 노래한 그의 시가 돋보인 연유는 여기에 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시 행간(行間)에는 관료이며 유학자였던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개처럼 던져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던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무의자 혜심은 설수(雪水)로 차를 끓였다. '목은시고' 권6에 실린 이색의 시에 눈(雪)을 모아 차를 끓이던 낭만적인 풍경이 잘 드러나 있다.

지친 사슴 굴속으로 찾아드네(巖鹿困投穴)
돌난간 눈이 쌓여 백옥난간으로 변했고(石檻變瑤臺)
흙섬돌은 옥섬돌이 되었구나(土階成玉砌)
선실로 싸늘한 추위 침범하고(威侵禪室涼)
창문으론 눈빛이 들어오네(色傍經窓徹)
산승은 추위에 맡겨두고(山人任大寒)
차 끓이며 좋은 시절 음미한다오(茗煎酬佳節)
시동 불러 눈송이 가져다가(呼兒取雪華)
소반 가득 옥처럼 쌓았네(滿盤堆玉屑)
손자국은 새긴 듯 선명하고(手迹卽彫鎪)
산 모양 닮아 우뚝하구나(山形髣髴屹)
소반에 가득 담아온
구멍 뚫자 용천에 버금가니(鑿穴擬龍泉)
녹은 물 떠서 작설차를 끓이네(挹澌煎雀舌)
어찌 내 즐겁고자 함이랴(豈是自圖歡)
남에게 맑은 차, 마시도록 함이라(要令他飮潔)
이것은 오직 수행자의 맛이니(此惟方外味)
인간 세상에 누설하지 말라(莫向人間泄)
아, 나는 본래 서생으로(嗟汝本書生)
세속을 벗어나 스님 대열에 끼었소
(脫俗參僧列)
조그만 방에서 맑은 바람을 마시며(小室飮淸風)
지독한 유가의 더위 식혀 간다오(儒門祛酷熱)
다만 팔 끊는 용기로(聊將斷臂力)
간절히 안심결을 묻는다네(切問安心訣)
내 불문(不問)의 물음을 묻노니(我欲不問問)
선사께서 무설의 설법을 말해주오
(請師無說說)



청자 연꽃잎 무늬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무의자 혜심의 다시에는
> 고상한 차의 맛까지 담겨
> 雪水로 찻물 삼은 정취도
> 혼돈시대에 마신 차 한잔
> 번뇌 씻는 청량제와 같아

윗글은 혜심의 '무의자시집' 권하에 수록된 다시(茶詩)이다. 초겨울 저녁,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새벽이 되자 설국(雪國)이 되었다. 자연의 오묘함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을까.

겨울의 싸늘한 냉기야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겠지만, 창문으로 얼비치는 눈빛이 그려낸 정경을 그림처럼 노래했다. 더구나 먼동이 트기 시작할 때 차를 끓임에랴. 따라서 그의 이 시는 싸늘한 겨울바람과 따뜻한 차의 향기를 대비하여 천지가 일치된 겨울 풍경을 한껏 그려낸 절창(絶唱)이라 하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색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갔던 관료이며 유학자이다. 그가 출가를 결심한 건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모친은 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본래 서생으로/ 세속을 벗어나 스님 대열에 끼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출가할 수 있었던 사연을 밝힌 셈이다. 그가 "조그만 방에서 맑은 바람을 마시며/ 지독한 유가의 더위 식혀 간다"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맑은 바람이란 수행자의 걸림 없는 삶을 비견한 말로 짐작되며, 지독한 유가의 더위란 복잡한 예절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유가의 학설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방장의 선사에게 불문(不問)의 물음을 물어 무설(無說)의 답을 듣고자 했던 건 안심결(安心訣)을 얻기 위함이었다.

한편 그가 차를 끓이면서 설수(雪水)를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반에 산처럼 눈을 쌓아 놓고, 구멍을 뚫어 물길을 냈고 소반에 고인 설수(雪水)로 작설차를 끓였다는 것이다. 설수는 눈을 녹여 만든 물을 말한다.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인물 웅명우(熊明遇 1579~1649)의 '개산다기(岕山茶記)' 에는 "차를 다릴 때 6가지의 물의 공이 있다. 산에 물이 없으면 빗물과 가을에 내린 빗물을 사용하는 것이 최상이며 1월 장마기의 빗물이 그다음이다.(…)눈 녹인 물은 오곡의 정수이지만 물빛이 맑지 않다. 물의 기운을 기르는 법은 옹기에 작은 돌을 넣는다.(烹茶水之功居六 無山泉則用天水秋雨爲上 梅雨次之(…)雪水五穀之精也 色不能白 養水須置石子於甕)"라고 하였다. 그는 설수(雪水)이 오곡을 길러낼 정기(精氣)를 품은 물질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찻물로 가장 적합한 물은 맑고 싱그러워야 한다. 그런데 설수는 맑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법(養水法)을 제안했다. 바로 설수를 보관하는 옹기에 작은 돌을 넣어 물의 기운을 복원시키는 법이다. 이때 사용할 돌은 흰색을 띤 작은 돌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정기가 약한 물을 보완할 수 있는 양수법(養水法)은 지금 활용해도 좋을 듯하다. 눈(雪)을 모아 차를 끓이던 낭만적인 풍경은 이색(李穡 11328~1396)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문인의 정취를 잘 드러낸 그의 '눈(雪)' 을 살펴보자.

창 아래 조용히 앉으니 생각은 끝없는데
(小窓淸坐思綿綿)
눈 올 기미 한창인데, 날은 저물어가네
(雪意方酣欲暮天)
두 뺨이 붉은 건 한창때라서가 아니요
(頰上雙紅非壯歲)
납전의 삼백은 이것이 풍년의 조짐일세.
(臘前三白是豐年)
죽옥에 뿌릴 때는 소리만 들어도 추운데
(洒來竹屋聲猶凍)
차 솥에 떠 넣으면 차 맛은 더욱 좋구나
(點入茶鐺味更妍)
쭈그려 앉아 읊조리긴 정히 쓸쓸하지만
(抱膝高吟正牢落)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이가 되레 위태롭네
(孤舟簑笠轉危然)

윗글은 '목은시고' 권6에 실려 있다. 원의 간섭기에 살았던 그는 1348년 원나라에서 국자감의 생원으로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원에서 돌아온 그는 전제의 개혁, 국방에 대한 개혁,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시정 개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건의문을 올렸다. 하지만 위란(危亂)에 처했던 고려 말, 한때 우왕(禑王)의 사부(師傅)를 역임하는 등 여러 벼슬살이를 전전했던 그도 고려를 다시 부강하게 하지는 못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후 1395(태조 4)년에 한산백(韓山伯)으로 봉하고 벼슬에 나아갈 것을 종용했지만 끝내 사양하여 선왕조에 대한 충절을 꺾지 않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도 차를 향유하는 풍습은 여전했다.

특히 관료 문인이었던 그의 차 생활은 고려 말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그의 시를 살펴보면 속세의 삶은 헛된 공상이 많다는 속인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창 아래 조용히 앉으니 생각은 끝없는데/ 눈 올 기미 한창인데 날은 저물어가네"라고 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다음 해에 풍년을 기약하는 징조라고 하였다. 눈이 내리는 대나무 집에는 눈이 오는 정황만으로도 추위를 느꼈던 지 스산한 겨울, 눈(雪)을 "차 솥에 떠 넣으면 차 맛은 더욱 좋다"고 하였다. 그가 차 맛이 좋다고 한 건 눈이 오곡의 정수를 지녔기 때문일까. 아니면 눈 내리는 정취가 차 맛을 더욱더 좋게 한다는 것일까. 이는 이색뿐 아니라 시를 읽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여훈(餘薰)일 것이다. 아무튼 그는 차를 마신 후 신선의 경계를 넘나 들었으리니,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그가 마신 한 잔의 차는 번뇌를 씻어준 청량제였던 셈이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 납승 본분은 도를 닦는 일뿐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㊶ 본분(本分)

"여러분! 출가를 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를 배우는 일이니라. 산승의 경우 지난날에 일찍이 계율에 마음을 두어 보았고 경전이나 논에서도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한 것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며 약에 대한 설명인 줄 알고, 마침내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고 바로 도를 찾아 선을 참구(參究)하였느니라. 그런 후에 큰 선지식을 만나 뵙고 도를 보는 눈이 분명해져서 비로소 천하 큰 선지식들이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을 제대로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알고 나온 것이 아니니 체험하며 연구해 연마하다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달은 것이니라."

선수행에 자주 쓰는 말에 '본분(本分)'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대로 새기면 본래의 자기 몫이라는 뜻인데 본래면목, 본분가풍 혹은 본분가업 등 여러 가지 말로 본분을 강조한다.

임제는 이 장에 와서 새삼스레 본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본분납승이 해야 할 일은 도를 닦는 일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가자가 이 본분을 망각하면 출가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임제는 출가 후의 자기 수행의 경력을 간략히 말하고 있다. 처음 율장을 연구하다가 다시 경론을 연구해 삼장(三藏)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선수행에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른바 사교입선(捨教入禪)의 행로를 거친 경력이다.

황벽에게 세 번 방망이를 맞은(三度被打) 후 대우에게 갔다 다시 황벽에게 돌아와 황벽의 법을 이었다. 위앙종을 연 영우를 참방한 적도 있었으며, 854년에 하북(河北) 진주성(鎭州城)의 동남쪽에 있는 호타하반(滹沱河畔)에 임제원(臨濟院)을 건립하고 선법을 크게 선양하면서 천하에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의 주장은 참다운 도를 바로 배우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선종이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번창했지만 그 중 임제종이 가장 번성했다. 당대(唐代)에 생긴 여러 선종이 송대(宋代)에 들어오면서 임제종을 제외한 다른 선종은 쇠미해지고 임제종만 남아 번창하면서 다른 종파들을 흡수해버린 경향을 보였다. 원(元) · 명대(明代)에 이르기까지 임제종은 종풍을 드날렸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제종 선맥(禪脈)이 계승되어 선수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시대 태고 보우(太古 普愚 · 1301~1382), 나옹 혜근(懶翁 慧勤 · 1320~1376) 등이 중국에서 임제선을 받아 온 이후 임제선 일색으로 선법이 흘러내려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임제문중 인천지안목(臨濟門中 人天之眼目)'이라는 말을 즐겨 써왔다.

선종을 표방하는 지금의 조계종도 종명(宗名)은 육조 혜능의 조계에서 따온 것이지만 선의 뿌리는 임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의 선사들은 거의 임제의 후손임을 내세우고 있다. 스님들이 입적했을 때도 망축(亡祝)을 하면서 '황매산하(黃梅山下) 친전불조지심인(親傳佛祖之心印) 임제문중(臨濟門中) 영작인천지안목(永作人天之眼目)'이라고 읊는다. "황매산 밑에서 친히 부처님과 조사들의 심인을 전해 받고 임제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소서"하는 축원이다.

이처럼 임제의 비중은 후대에 와서 더욱 커져 임제가 선을 대표하고 진정한 선수행은 임제 종지를 터득하는 데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선은 이 문제에 착안하여 단도직입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임제 종풍이 으뜸간다고 여겨온 것은 선종 후대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강물이나 바다가 위치에 따라 수심(水深)이 다르고 산도 봉우리의 높이가 다르듯이 깨달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다고 본것이다. 일례로 아라한의 경계와 보살의 경계가 다르다고 보았고 부처님의 경계와 보살의 경계가 다르다고 보았다. 깨달음 자체가 인간의 가장 깊은 체험이라고 할 때 체험의 정도가 엷고 깊은 차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 존재하는 느낌 모두 괴로움



세상 속 경전읽기

㊶ 삼고팔고(三苦八苦)

부처님법의 핵심인 사성제를 요약하면, 인생이 일체개고(一切皆苦)[苦]인데, 그 원인[苦集]은 관능적인 갈애(渴愛)[欲愛], 당길심[무엇이 되고 싶은 갈애, 有愛(貪愛)], 밀칠심[무엇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갈애, 無有愛(瞋恚)] 등의 삼애(三愛)이다. 질병상태를 건강상태로 바꾸듯, 일체개고를 열반적정(涅槃寂靜)[苦滅]으로 바꾸려면 팔정도[苦滅道]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느낌[受]은 세 가지[三受]로 대분할 수 있으니, 곧 즐거운 느낌[樂受] · 괴로운 느낌[苦受]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受, 捨受]이 그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3수를 말씀하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一切皆苦]이라고 말씀하셨다.

〈잡아함경〉 제17권 473번 '선경(禪經)'에 보면, 한 비구가 선정에 들어 사유하다가 이 부분에 의문이 생겼다. '즐거운 느낌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도 있는데 왜 모든 느낌은 다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선정에서 일어나 세존께 가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현상[行]은 무상하고 변역(變易)하는 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느낌은 다 괴로운 것' 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강조하셨다.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고, 모두가 변하고 바뀌는 법임을 알기에 느낌은 모두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나니, 바른 깨침[正覺]으로만 아는 바[所知]이네. [知諸行無常 皆是變易法 故說受悉苦 正覺之所知]" 〈雜阿含經 T0099_.02.0121a12-13〉

인생고(苦)는 무수히 많지만, 대별하면 몸으로 느끼는 생 · 노 · 병 · 사(生 · 老 · 病 · 死), 마음으로 느끼는 애별리고(愛別離苦) · 원증회고(怨憎會苦) · 구부득고(求不得苦) · 오취온고(五取蘊苦)의 팔고(八苦)를 들 수 있다. 8세기 초 당나라 학승 의정(義淨)이 한역한 율(律)인 〈비나야잡사(毘奈耶雜事)〉의 서술을 살펴보자.

"고성제란 무엇인가? 이른바, 생 · 노 · 병 · 사의 고(苦)와 애별리고(愛別離苦) · 원증회고(怨憎會苦) · 구부득고(求不得苦)와 간략히 말해 오취온고(五取蘊苦)를 고(苦)라고 이름한다. [云何苦聖諦。謂生苦病苦老苦死苦。愛別離苦怨憎會苦求不得苦。若略說者謂五趣蘊苦°是名爲苦。]"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T1451_.24.0407a07-9〉

사리자(舍利子) 설(說), 현장(玄奘) 한역의 〈집이문족론(集異門足論)〉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입장에서 약 200가지 용어에 대해 정의와 해설을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론(論) 제5권 '삼법품(三法品) 제4의 3' 에 삼고(三苦)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3고(三苦)의 성품[性]이란, 첫째는 고고(苦苦)의 성품, 둘째는 괴고(壞苦)의 성품, 셋째는 행고(行苦)의 성품[性]이다. [三苦性者。一苦苦性。二壞苦性。三行苦性。]"

〈阿毘達磨集異門足論 T1536_.26.0384b20〉

3고 중, 1) 고고(苦苦)는 한열기갈[寒熱飢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 등 몸의 괴로움과 뜻에 맞지 않는[不可意] 마음의 괴로움[身心之苦受], 2) 괴고(壞苦)는 몸의 즐거운 느낌과 뜻에 맞는[可意] 마음의 즐거운 느낌[樂受]이 변하고 부서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생기는[樂受變壞或得不到] 괴로움. 3) 행고(行苦)는 사물이 변화무상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物事變化無常 我们做不了主] 괴로움이다.

8고를 3고에 배대하자면, 생로병사 등 몸의 고통과 미운 사람 만나는[怨憎會苦] 마음의 고통은 고고(苦苦), 오취온고[변화무상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온에 탐착이 있으므로 괴로움]는 행고(行苦),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별리고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는 괴고(壞苦)에 속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㊼ 깨침의 길 2

# 깨침, 언어의 길이 끊어진 체험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언어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 1889~1951)의 유명한 말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쉽게 규정하는데, 사람의 감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길을 걷다 하늘을 보더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니 비가 오려나봐"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로 먹구름이 끼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명한 것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침묵한다면, 사람들 간의 오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어디 그럴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을 종교에 적용하면 무척 난처해진다. 종교는 검증의 영역을 넘어서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침묵밖에 없다. 특히 붓다의 깨침을 논할 때는 더욱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깨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言語道斷)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心行處滅)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45년 동안이나 언어도단의 세계에 대해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다. 팔만대장경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의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에 실린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물 안에 여러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개구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자신이 본 하늘이 과연 저만큼인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매번 떨어지는 바람에 쉽게 나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온힘을 다해 뛰어올랐고 기적처럼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개구리의 첫 마디는 '아!' 라는 감탄사였다. 우물 안의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하늘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았던 하늘은 그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 흠뻑 취해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맘껏 즐겼다.

그런데 개구리는 문득 우물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멋진 세계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본 하늘은 실재(reality)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우물 안으로 돌아온 개구리는 벗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드넓은 들판과 시냇물, 나무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우물 밖을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저 넓은 들판을 내 배의 '2배' 만큼이나 넓다고 소개한다. 그제야 비로소 다른 개구리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개구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우물 안에서 가장 큰 숫자는 2였기 때문이다. 비록 저 넓은 들판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2' 라는 상징(symbol)을 동원해서 설명했던 것이다. 상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을 '2배' 라는 우물 안 언어를 통해 바깥 세계와 연결해주는 수단이었다.

여기에서 우물 밖으로 나간 개구리는 붓다나 그리스도, 마호메트와 같은 종교적 체험을 한 인물을 가리킨다. 우물 밖 세계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붓다는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 길잡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과 언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개구리 배의 '2배' 는 결코 우물 밖 들판의 실재가 아니다. 이는 마치 싯다르타가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종교 경전에 상징이나 비유(analogy), 은유(metaphor) 등이 동원되는 것도 바로 체험과 언어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붓다는 45년 동안 언어의 길이 끊어진 깨침의 세계를 중생들의 언어로 전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아이 감정 형성, 부모의 共業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 ㉑ 인격과 관계



**21-1** 인격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격과 동의어로는 성격이 있지요. 또 기질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각각 personality chacter temperament입니다. 성격이나 기질은 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느낌이 드는 표현이고 인격은 후천적 성격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듯이 타고날 때부터 고정되고 완성된 몸 · 마음은 없지요. 인격도 몸처럼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지요. 죽을 때까지 변화를 겪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아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항상 지속되는 나로 파악하는 속성을 지칭합니다만 자아 정체성이 마음 자체나 마음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자아는 인격의 중심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시기마다 변하여 성숙과 쇠퇴의 경과를 밟는 것 같습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구요? 예를 들어보지요. 전형적인 예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후에도 그렇고 큰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그렇지요. 보다 극단적인 예는 자식도 몰라보는 중증 치매 환자죠. 그래도 자아가 고정된 영혼 같은 것인지요?

**21-2** 인격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형질에 더하여 후천적 환경적 경험이 합쳐져서 형성됩니다. 수많은 연구와 관찰에 의해 쌍둥이일지라도 양육 환경이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성향으로 자라고, 모성이 박탈된 원숭이와 그렇지 않은 원숭이 사이에 행동의 차이가 얼마나 판이한지 밝혀낸 연구 등이 유전과 환경의 합작품으로 인격을 정의하게 하는군요. 인격의 성장은 뇌신경세포들의 성숙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학습에 의해 신경 시냅스(연접)가 활발하게 연결되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조화롭게 손들을 잡아 연결되는 데 반해 열악한 환경에서는 신경 연결이 원활치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연결도 고정적으로 유전적 명령에 의해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매순간 신경 시냅스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마음의 현재 상태가 신경 연접을 결정지우기도 하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3** 그렇다면 인격을 형성하는 환경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최초의 기억을 살펴 보시지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몇 살 때 기억으로 생각됩니까?

대체로 초등학교 입학 이전 기억은 거의 없고 한두 장면만 떠오릅니다. 상담치료를 해보면 5~6세 이후부터 기억하고 3~4세 이전 기억을 연상해낸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기억력과도 관계가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경우엔 자세한 내용은 없이 장면만 기억해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 영유아 시절의 경험이 인격 형성에 근간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3~4세 이전은 아직 충분한 언어 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 온몸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환경은 어머니 자궁입니다. 어머니 자궁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아에게 어머니의 자궁은 그대로 세계 전체입니다. 모태의 양수는 우주적 바다이지요. 어머니의 심신 양면의 모든 상태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인격 형성에서 가장 첫 부분은 임신한 어머니의 심신 상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임신이 원한 임신이었는지 원치 않은 임신이었는지, 우발적 임신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임신한 것인지, 강간과 같은 재난에 의해 임신하였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요? 임신 10개월 동안에도 엄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부부가 끊임없이 불화하고 속을 태웠는지…시부모와 갈등 상태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대화하고 다독여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언행을 조심하는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부모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 **인격 형성, 유전과 환경 영향**
> **환경 요인 중 부모 영향이 커**
> **억압된 분노가 가학성향 발전**
> **조건없는 존중이 자존감 높여**

**21-4** 출산도 중요합니다. 난산이었는지 순산이었는지, 아들을 원했는지 딸을 싫어했는지, 주위에서 환호하고 축복하였는지 그 반대였는지… 출산은 어떤 심리적 의미가 있을까요?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떠나 첫 일성은 울음입니다. 신생아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눈을 감고 갓 태어난 신생아의 심정이 되어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구요? (웃음)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보시지요. 아주 두렵다구요? 예... 막막하고 외롭고 춥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유지된 온도에서 혼자 분리된 아이는 호흡도 태식에서 공기로 호흡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자동적으로 공급되던 완벽한 상태에서 불만스런 수동 상태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충격을 받는 거지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첫 괴로움- 태어남의 고통(生苦)입니다.

**21-5** 출산의 심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산, 태어남은 어머니에게 완전 기생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 독립을 처음 시작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인격의 발달이란 그런 의미에서 자립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홀로 서기도 만 일 년이 지나야 되고 정신적 · 경제적 · 사회적 자립까지 되려면 20~30년 경과해야지요? 물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립하지 못하고 늙어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요. 열 달이나 배 안에 무겁게 안고 키운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아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내가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다니' 라는 경외감과 뿌듯함,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 엄마와, '아 저 아이 땜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파혼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애물단지구나' 하고 원망하는 엄마도 있지요? 또 한편으론 이와 같은 설레임이나 행복과 불안 걱정 불만의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갖는 산모도 있겠군요. 이런 양가감정은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 인공유산을 고려해본 엄마는 더욱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겠지요. 지워버릴 생각을 받은 아이도 민감하게 몸에 입력하여 훗날 이유를 알 수 없는 반항과 부정적인 모자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21-6** 허용적이고 자애로운 엄마도 많지만 너무 집착이 강한 과잉보호형 엄마와 너무 엄격한 과잉통제형 엄마, 방치형이나 무관심형 엄마, 나아가 모성의 부재라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모 밑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격체들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시지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최초의 세상인 부모와의 관계 방식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대하는 그대로 아이도 모방하고 학습하여 세상을 대하게 되지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이것을 웅변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생물학적 유전형질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관계방식마저 물려받습니다. 부모와 관계에서 아이는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최초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데 그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항상 뭔가 필요하고 불편할 때 그걸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부모로부터 깊은 안도감과 믿음이 생기지요. 이것을 기본 신뢰(basic trust)라 부르지요. 이런 기본 신뢰가 확고한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신을 비하하는 자존감이 극히 낮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순종만을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섭과 나무람이 지나치겠지요. 조금만 울어도 나쁜 아이요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라면 아이가 자유롭게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 눈치를 살피게 되겠군요. 이런 아이는 맹목적으로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지배당하고 소유당해야 편함을 느끼면서 자기 결정을 못하고 중요한 인생 고비마다 힘들어서 신경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억압된 분노, 적개심 등 불편함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 자해 아니면 공격적이고 가학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려 들거나 조종하려 들기 쉬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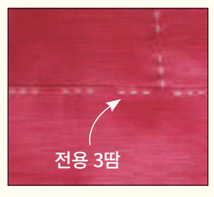
**21-7** 이와 같이 아이가 세상과 맺는 관계방식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고 부모의 관계 방식은 부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가족에 특징되는 성향이 대물림되지요. 이를 불교에서는 업의 상속이라고 표현하지요. 윤회라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요. 인과의 깊은 의미를 맛볼수록 윤회는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 법칙 그대로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모가 될 것인지 허용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사랑도 조건부 사랑이 아닌 조건없는 사랑이요 존중이어야 아이를 독립적이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겠군요.

**21-8** 상담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은퇴한 노신사는 돈도 부족하지 않고 자식 걱정도 없는데 마음에 평화를 얻지 못하면 죽어도 한이 많을 것이라면서 울먹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은 분이지요. 아버지는 오랜 병환으로 사랑을 줄 수 없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호랑이같이 억척스럽고 무서운 분이어서 칭찬 한 번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형제들로부터도 구박만 받고 자라 너무 위축되고, 순하다보니 친구들도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았지요. 아내도 장인도 모두 강하여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 대하고 직장에서도 강한 상사나 동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아픔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답니다. 정신분석치료도 받고 선수행도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옭아매는 것 같아 도무지 대인관계가 편하지 않다 하였지요.

그런데 치료자의 조용한 귀 기울임과 상담 시간 내내 거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거나 권고 한 마디 하지 않는 치료자를 처음엔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피곤하겠다며 동정을 표하기도 하더니 마침내 치료자의 고요하고 따뜻한 침묵이 자신을 크게 깨우쳐주고 신뢰를 주었다며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상담가와 선원에서 들은 것들이 정리되고 통합되는 시간이 되었다 했습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 / 의사 / 약사 / 재력가
사업가 / 공무원 / 교수 / 회사원 등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신뢰·정확한 정보
◈성사위주
◈성실상담
김계숙 원장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용 3땀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315호 | 15 | 전면광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깊이 생각하며
행동이 깨끗하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 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배우자 구함**

●남61세 경북
●직업 : 철학교육 · 교수
●전원주택에 거주할 분
●여성은 '거짓이 없는' 여성분
●문자주세요
010-4014-8822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기도 부전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010-5736-1835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010-7307-1727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기도의 신**

특수기도법을 정통으로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부설)

우학스님의 유튜브강의
(생활법문, 경전·조사어록강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사부대중, 행자모집중)
문의 : 054-753-822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 종류 | | 크기 | | | 수량 |
|---|---|---|---|---|---|
| 향로(스텐) | 特大 | 지름: 20cm | 높이: 18.5cm | 내부: 13cm | 5kg |
| 향로(스텐) | 大 | 지름: 17.5cm | 높이: 18.5cm | 내부: 11.5cm | 3kg |
| 향로(스텐) | 中 | 지름: 13.5cm | 높이: 16cm | 내부: 10cm | 1.5kg |
| 향로(스텐) | 小 | 지름: 12cm | 높이: 12.5cm | 내부: 8.5cm | 1kg |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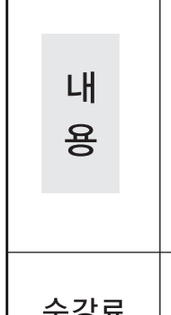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315호 | 16 | 전면광고

대성인이시고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의처이므로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뵙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힐소설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명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암치유 명당
- 십승지(해발650미터)
- 전 1만평 / 주택(55평) / 옛집(25평)
- 평당 13만원

010-5758-760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5천만원(가격절충)

010-5421-1536

##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7천만원

010-5804-5100

##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급 양도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 평수 : 대지 264.5㎡, 연면적 762.99㎡ 제2종지역,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 주인세대 156.05㎡(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건물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156.05㎡(47평) 최신 불단조성, 종무소 큰방, 스님방, 실내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양도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주변 대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생활편리
- 급매가격 : 7억 8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5천만원

010-9011-7230

## 포 교 당 급 매

- 위치 : 서울 3호선, 6호선, 연신내 역에서5분거리
- 평수 : 38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5만원
- 방1, 주방1, 화장실2, 시설비 8백만원, 주차가능,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됨

010-8809-9979
010-2804-8440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창고형, 1층 공양간(방3개, 화장실) 1층 방3개, 화장실, 3층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철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 오래된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912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건물, 단청, 공원같은 암자, 둘레에 60년된 큰소나무 많음,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동서울에서 1시간 가량
- 1억5천 안고 3억 합 4억5천

010-3535-7906

## 지리산 청정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 산청군 중산리 청정지역
- 1200평 마당전체에 미륵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있음, 건물3동, 마당에 폭포, 방안에 편백나무 부착 되어있음, 주차장넓음
- 가액 : 7억(3억대출있음)

010-7104-1679

◈◈◈
**천하 명당자리**
**환경 최고 전망**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010-4492-347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 도심 최고의 포교사찰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 2필지 200평 • 건물 : 법당 50평
- 제일요사체 100평, 제이요사체 50평
- 사찰운영 양호
- 대출 10억 가능

010-9759-7152

## 토 굴 법 당 안 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인법당)
- 대지 : 100평
- 전세금 4천만원
- 시설금 6천만원 법당 30평, 9층탑, 산신각
- 평생거주조건

010-8567-3667

## 봉안당 장사시설 안내

- 중부권의 위치좋은 봉안당 운영 및 투자, 매도, 협의 제안
- 충청권 대전 경계에 위치한 봉안당을 운영중 입니다. 기존시설에서 수목장, 자연장등 앞·뒤 토지가 충분함.
- 매입비와 활성화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자본력이 있는 단체나 추모시설 사업에 계획이 있는 사업체만 전화주세요.

010-9415-454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 전원주택·사찰·요양원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암로 1669
- 지방도로변 계획관리지역
- 대지 329평,전 421평, 임 385평
- 주택 34평, 황토방 1, 창고 50평
- 자연암반수 우물있음
- 가액 : 3억7천만원

010-3848-2452

##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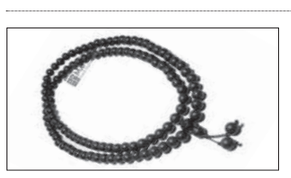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대구지사 | 손문철 | M 010-2813-8008 |
| 부산지사 | 이도경 | M 010-5640-8883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M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M 010-8642-7733 |
| 경남지사 | 성낙두 | M 010-3860-7008 |
| 영주지국 | 박영애 | M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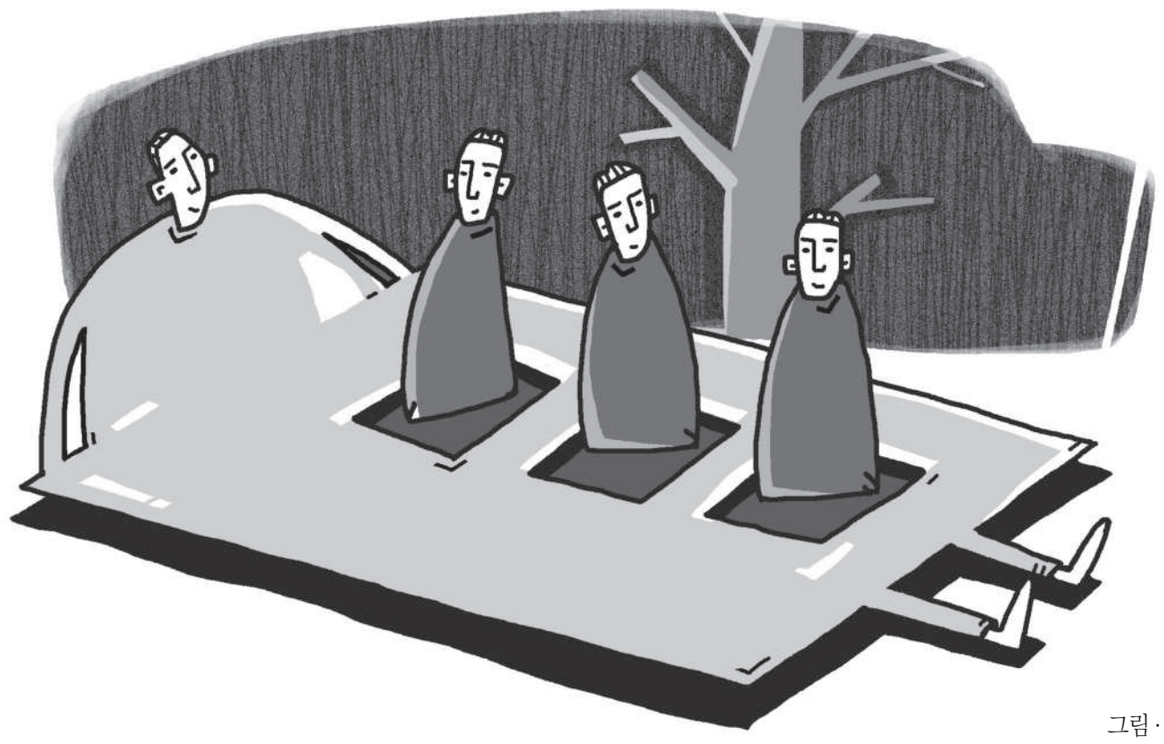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 스위치를 누를 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탑에 관한 것이나 수계에 관한 것이 함께 첨부된 얘깁니다. 수계에 관한 건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생동력 있게 또 걸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진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육통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통이 돼서 말입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하나만이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몸뚱이를 한마음으로써 이끌어 나가려면 내 마음 자체를 움죽거려야 이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그대로 잘하고 나간다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다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털구멍을 통해서 바로 나가서 조절하고 안에서 모자라는 건 작용을 해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줍니다. 즉 마음을 따라서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의식은 보살로 화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하시면 의식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 육신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르니까, 마음공부들 열심히 해서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들고 난다면 그것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의 생명의 의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이게 전부 수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대로 이 몸속에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을 뿐입니다. 오계를 받는 데에 이것을 말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게 돼 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야겠다 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 줍니다. 또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형제들 간에도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남의 탓을 하면 무엇하랴.' 하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로 지혜가 부풀어져서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편안하게 이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생각에 따라서…. '아, 그까짓 술 몇 잔 먹는데 뭐 어때?' 이러면 그대로 되는 거고, 오늘 오계를 받은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술을 약주로다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는 좋지만 그거 먹으면 몸도 해롭고, 내 몸이 해로우면 식구를 전부 가난케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몸을 간수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식구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속에서부터 저절로 안 먹게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두 잔 먹는 것은 어떨 때 좋은 약이 되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바뀌지면서 그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진화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어떤 부모가 내 부모 아닐 것이며 어떤 자식이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다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수억겁을 통해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했으니 내 부모 아니 됐던 게 없고 내 자식 아니 됐던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내 자식만 내 자식이고 현재의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거든요. 한 철을 자식으로 또는 부모로 살면서 수없이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헤어져 온 것이,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또다시 모일 때에 인연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더라도 '아, 전자에 모자랐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바로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한울과 같아서 지혜롭기 때문에 천지를 다 쥐고도 남고 굴리고도 남고 덮고도 남고 들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계를 설하고 여러분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 대답을 아주 떡 떼어 먹듯이 잘하셨는데, 허허, 오계도 못 지킨다면…. 그리고 전자에는 오계를 설하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전체 다섯 가지가 다 "마라"로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샛문을 틔워 놓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분수를 알고 마셔라.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거를 훔치라는 게 아니고, 허허허…. 그러니까 살생을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에 맡기고 하면 그대로 두 마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살아난 사람의 마음이나 죽는 고기의 마음이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고기는 고기의 허물을 벗고, 모습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쪽에는 그 고기의 살을 약으로 먹으니 병이 나아서 좋고요.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스스로 남을 위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남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벗어야지 만약에 말이나 이론으로 벗으려면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만날 말씀해 드리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입을 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열심히 하셔야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내 형상이고 부처님의 법도 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거를 둘 아니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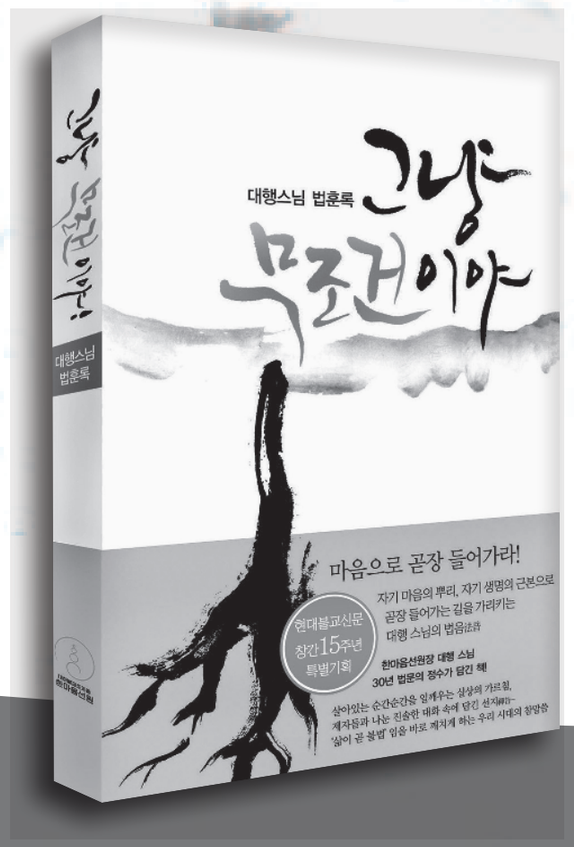
전기를 방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돼야 전력이 들어오죠, 가설이 돼야. 그러니까 가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줄과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듯이 말입니다.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즉 우리들의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단 얘깁니다. 전기 가설은 다 돼 있는데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으니 이게 불이 생전 가야 들어옵니까? 그걸 누를 줄을 모르고 누르는 거를 해 놓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만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를 줄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을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조상을 이끌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늘 오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데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 이 공부는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옷을 벗고 다시 나올 때에 차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공부는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천체 물리가 터져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권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기복으로 가르치신 예가 없어요. 관법으로 그대로 둘 아니게 해야죠. 즉 말하자면 현재 자기는 자(子)가 되고 과거에 살던 자기는 부(父)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가 되고 생각을 내면 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 즉 보현신이 되는 겁니다.

보현신은 뭘 하는 보살입니까? 여러분이 '아이, 지금 불을 켜야지. 불을 꺼야지. 부엌에 뭘 들여놨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하면 총총 뛰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다가도 엎어지면 '아이고!' 하고선 그냥 자기 손부터 벌써 갑니다. 요게 보현신이에요. 생각을 했다 하면 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법 말입니다.

진주에서도 여러분이 이 반야줄을 쥐고 가고 있습니다. 우주와 직결돼 있는 줄을 반야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야줄을 쥐고 갈 줄 알면 요다음에 죽어서도 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현보살들이 다 모셔 가요. 알았어요? '기복으로 믿어서 영 그 도리를 모른다면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만 알아서, 짝짓는 그 의식만 알아서 아무 데로나 들어가는 거예요. 장님이면 그래도 누가 인권해 줘야 구덩이에 빠지지를 않죠? 인권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줄이 없으니까, 줄을 잡고 가야 할 텐데 줄을 못 잡으니까 그냥 까치 둥우리 아니면 뱀 소굴, 아니면 아무 데로나 그냥 닥치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모습은 주어진다 이겁니다.

하등 생물들은 촉각이나 시각 등이 발달해서 그걸로 그냥 다 살아나가지만, 우리 인간은 감각이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도가 있다구요. 도심이 있어서 그런 걸로 삽삽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둔하죠. 인간은 큰 덩어리가 돼서 둔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닦아 나간다면 내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도 바로, 컴퓨터를 누르면 누르는 대로 따라서 나오듯이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난만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치지 않고 영령들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탑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스님네들이나 열반하셔야 사리탑을 했습니다. 그 사리탑을 하는 것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하면서 항상 공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여기서 줄을 잡고 가는 분들에 한해서 이 탑에 모셔진다면 그대로, 오는 사람도 공부의 질을 높여 주고 자기도 공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탑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제일 으뜸이고, 한국의 땅덩어리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묘지처럼 흩어지고 망가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것이 두 번째로 으뜸이에요.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않아서 자손들이 한 군데만 오면 조상들을 뵐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좋은 거고, 넷째는 보통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탑 하나만 하면 대대손손이 그냥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중들이 돈 벌어먹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일본에서는 자식들 대에 쭉 가면서 20년간을 2천5백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낸대요. 그러니까 전세죠. 그런데 이거를 내고도 20년 동안 관리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관리비는 예외로 치고도. 어디 가나 다 관리비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20년 후에 어느 자손이 또 그 돈을 내고 그대로 계속 둘 건가 이것도 문제구요. 찾아가라 해서 안 찾아가면 아주 그냥 갖다가 버린답니다. 그것이 싫어서 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 죽어서도 공부하고 다시 태어나서도 편안히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할 때에 차원에 따라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만 중생을 다 먹이고 이끌어 주면서 살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기계를 고치던 사람은 그거를 버리고 딴 거를 못 하듯이 도둑질을 항상 해 버릇한 사람은 도둑질하고 싶어서 딴 건 하기가 싫거든요, 배운 게 그거니까. 또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벌어서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나쁘게 할래야 나쁘게 할 수가 없죠. 웃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네 가지가 다 아주 일품이죠. 다섯째는 뭡니까? 산 사람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모나 자식이나 한 염주알이니까요.

예전에 법회 했던 것을 모두 비디오로 녹화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기 오셔서 또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나서 "아이구, 그거 한 번 들어 보니 그만하면 알겠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알았어!' 하고 머리로만 안 거 가지고는 실천으로 한 번도 옮기지 못해요. "저 사람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야 실천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좋았어요. 무슨 세금 내란 말도 없고 치울 것도 없고 뭐, 그냥 땅바닥 딛고 다녀도 땅 세 내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디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진주에서 탑돌이를 했지만 이 무영탑이 무영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직결돼 있는 그런 탑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탑지들이 모두가 하나하나 이 큰 탑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저 무영탑에서 한 번만 하면 거기서 하달을 내립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에서, 대뇌 소뇌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하달이 되면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 몸뚱이 하나 사는 것이 한 세계가 사는 거와 같은 겁니다. 다스리는 주인공 한테 모든 걸 맡겨 놔야 거기에서 책정을 내려 가지고 한순간에 사대로 통신이 돼서, 어느 공장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통신이 돼요. 위 나라, 장 나라, 척수 나라, 척추 나라, 방광 나라, 콩팥 나라 할 거 없이 말입니다. 식도 나라까지 그냥 다 통신이 돼서 모자라는 데가 있으면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을 배우는 사람도 심성 의학을 배워야 50% 무의 세계에서 오는 거, 50% 유의 세계, 물질세계에서 오는 거, 그것들을 다 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모두가, 문화 문명도 그렇고 천체물리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만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거야 라면을 먹어도 한 끼니 때우고 하루 지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요, 그저 따뜻하게 먹고 뜨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다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꿉질하면서 하루 놀다가 해가 지면 소꿉질 놀던 거 다 버리고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살얼음판을 걷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요, 그렇게 한 철 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몸뚱이는 배로 비유하고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해서 "너희는 망망대해에 배를 띄워 놓은 거와 같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면 배가 뒤집힐까 봐 그냥 안달복달하고 야단들을 하는데, 그렇게 일어서서 좌우로 휩쓸리면 배가 뒤집히게 된다. 그러니 선장한테다 모든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모아 주고 가만히 있으면 폭풍을 무난히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배로 비유를 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고 그런다면 이 몸뚱이는 점점 망가져서 배가 뒤집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불법이 무엇인가? 불교(佛敎)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럴 것이 없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뭐든지, 저런 나무들이든지 뭐든지 생명이 있는 건 불(佛)입니다. 저 나무들도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러는 걸 알아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앙당한 가지로 그냥 저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순간에 잘될 때가 있겠지. 괜찮을 때가 있겠지.'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불이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고 알고 지혜롭게 대치해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 자체가 그냥 불교예요. 우리 인간들만 불교가 아니라 생명들이 있는 거는 다 불교죠.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교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안과 밖이 없으니 둘이 아니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몸통 안에서 벗어난다는 뜻은요, 이 몸통 안의 모든 생명들이 내 마음을 따라 주게 해서 조복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 주는구나.' 하고 그걸 알아야 조복받은 게 되죠.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따라 주게끔 돼 있는 게 바로 조복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권을 얻는 거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놓으면 내가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서의 자유자재권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 그렇게 벗어나서 자유권을 얻어야, 이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립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죠. 자기가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요. 이게 바로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컵을 들어 보이시며) 우린 지금 요런 주머니 안에서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살 없는 감옥이죠. 창살이 없으면서도 창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한번 물건을 던져 보면 물건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집을 한번 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에서 집에 가는 거나 저 문 바깥을 가는 거나 우주 전체를 돌아가는 거나 태양계를 가는 거나 모두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가깝고 멀고가 없어요. 그래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빛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도 없어요. 그러니 이 광대하고 무변한 묘법을, 마음의 묘법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중략)

**사회자** 이어서 수계자 여러분이 연비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큰스님** 응, 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나는 말이에요, 벌써 오계를 읽을 때 뭐부터 하느냐 하면 아예 꼭꼭 박아 줘요, 그냥. 나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일체제불 그 천지에서 그냥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근데 이 팔에 불이 그냥, 지글지글지글 타면서 이렇게 됐던 게 한 10년이 가니까 없어집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형식이지만 그게 없다면 못 하겠습디다. 꼭꼭 박아 드린다구요. 그러니까 또 보이는 데 안 하면 무효가 되는 게, 모두 '아이고! 우리는 이거 연비를 받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해 준 건 모르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또 해 드려야죠, 둘 아니게. 그럼….

(이어서 연비 의식이 진행됨)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형제들 간에도**
**'내가 이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남의 탓을 해서 무엇하랴.' 하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로 지혜가 부풀어져서**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편안하게 이끌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위 법문은 1996년 2월 11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일감 스님의
## 암각화 기행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며 축제를 열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태양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듯 보인다.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중간 선(線)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도 태양이 있다.

위쪽의 태양은 사람이 태양을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인지, 태양이 태양을 들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든 재미있다. 태양이 태양을 들고 있든, 사람이 태양을 들고 있든, 태양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진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번뇌는 사라지고 맑은 기운은 차올랐을 것이다. 진정한 축제가 이런 것인가 싶다. 그런데 두 영역은 왜 나눴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위 공간은 제사 등의 의식을 치르는 '신(神)의 공간'이고, 아래쪽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공간'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태양은 사람 중에 '태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고대 역사를 다룬 사극(史劇)이나 드라마에 보면, 태양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태양왕이 등장하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태양왕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마음 쓰고 행동하기를 태양처럼 빛나게 해서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태양왕일 것이다.



### 신의 탄생
〈神〉

사람들이 제단에서 춤을 춘다
태양도 내려와 함께 춤을 춘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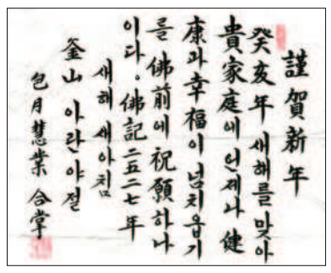
제사, 기도, 소원 성취
그런 말은 다 잊어버렸고
춤을 출 뿐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神)이 태어난다



대원성보살의
## 선지식 '산중서신'
㉑ 혜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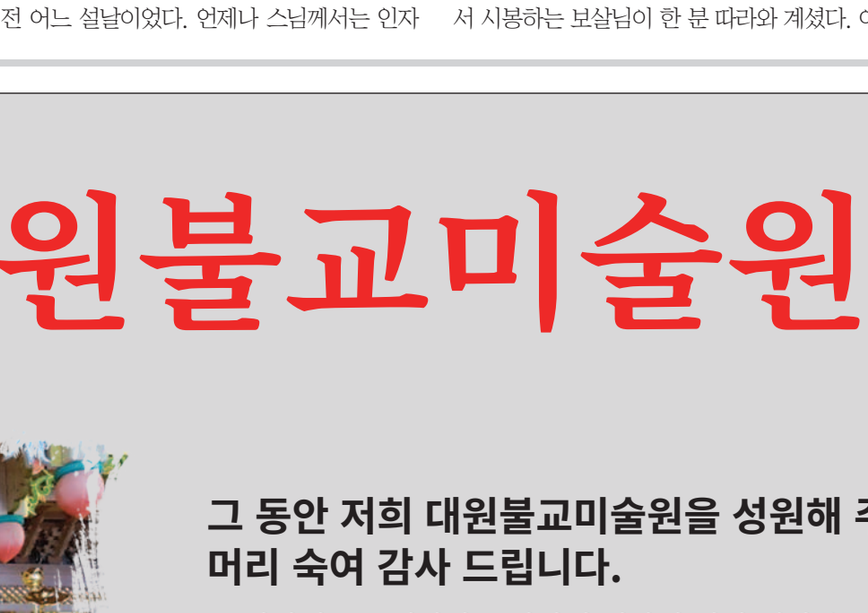
# 스승의 따뜻한 사랑 속에 떠난 제자



〈서신〉
근하신년, 癸亥年(계해년) 새해를 맞아 貴(귀)家庭(가정)에 언제나 健康(건강)과 幸福(행복)이 넘치옵기를 佛前(불전)에 심축하나이다.
불기 2527년 새해 새아침 부산 아란야 절 包月(포월) 慧業(혜업) 합장

한 번의 짧은 서신이지만 각별한 서신 중 하나다. 혜업 스님은 일타 스님의 맏상좌로 운허 스님의 강맥을 이었다. 스님은 타고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스승보다 먼저 원적에 든 스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거워진다.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이 많지는 않지만 가슴 속엔 많은 추억이 있다.

1980년쯤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이웃의 도반이 산삼을 들고 와서는 혜업 스님의 스승인 일타 스님께 드리고 싶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나와 도반은 지족암을 찾아 일타 스님을 뵈었다. 산삼을 가져왔다고 하자 스님은 보자기를 열기도 전에 "중이 더덕이면 됐지 무슨 산삼이냐"며 "빨리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셨다. 스님은 잠시 후 조금 미안하셨는지 차 한 잔을 주시며 "그래 대원성아, 기왕에 가져온 것이니 그것을 우리 혜업이가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우리는 바로 혜업 스님이 계신 감로사로 향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혜업 스님은 "큰스님도 안 드신다고 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라고 하시며 "제가 그것을 먹고 백년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합니다"고 하셨다. 우리의 간곡한 청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스님께서 산삼을 자신이 먹겠다며 다시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겠다고 하셨다. 간밤에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가마솥에 약을 끓여 주었는데 아마도 그 노인이 큰스님이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스승이 주시는 것이니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다.


일타 스님과 혜업 스님(오른쪽).

음력 설날이면 해마다 연꽃모임 도반들과 해인사 부처님 전에 예불 올리고 지족암에서 주석하고 계신 일타 스님께 세배를 드리러 갔었다. 40여 년 전 어느 설날이었다. 언제나 스님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손수 차를 우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며 덕담과 법문을 주셨다. 그리고 즉석에서 붓글씨도 한 점씩 써 주셨다.

우리는 그날 지족암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저녁 공양 후 스님을 졸라 윷놀이를 하게 되었다. 일타 스님, 혜인 스님, 혜업 스님이 함께하셨다. 그때 혜업 스님은 몸이 몹시 좋지 않으신 상태여서 시봉하는 보살님이 한 분 따라와 계셨다. 아프신 몸이었지만 그날은 스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다음 날,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뒤쪽에 앉은 혜업 스님의 시봉 보살님이 "보살님, 앞에 계신 혜업 스님 오래 못 뵐 것 같아요"라며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의자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참을 울고 나서 스님 쪽을 보았는데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구로 가시기 위해 중간에 내리셨다고 했다. 나는 부산까지 오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전날 저녁 윷놀이 하실 때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렇게 밝게 웃고 계셨던 스님이 이제 곧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후 20일 쯤 지난 날 스님께서 우리 집을 찾으셨다. 그날도 역시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오셨다. 나는 스님을 반갑게 맞았고 저녁공양으로 죽을 올렸다. 그것이 마지막 공양이었다. 혜업 스님은 이틀 뒤에 입적하셨다. 스님은 그때 40대였다. 스승이었던 일타 스님은 평소에 "운허 스님의 강맥을 이은 인재"라며 늘 제자 자랑을 하셨다. 영결식이 끝난 후 "우리 혜업이가 … "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던 일타 스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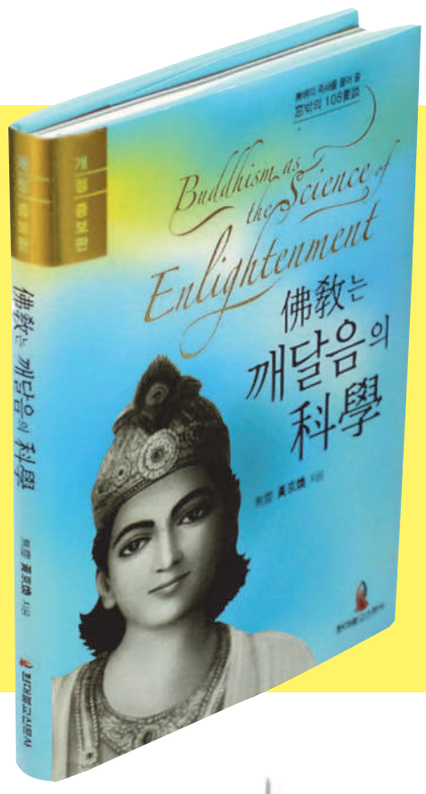
##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본문 중에서)

#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무명(無明)에서 비롯한 '나'라는 관념(觀念)을 깨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면
생로병사(生老病死)란 꿈속의 꿈이요.무명에서 비롯된 '나'라는 관념의 족쇄에 묶여 있으면
그 나라는 존재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이러한 무명(無明) 중생(衆生)의 삶을 처절한 고통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틀고 있는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마치 독사와 같은 이 흉측한 Ego(탐, 진, 치)를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기만 하면,
텅 비어진 그곳에 온전한 우주의식이 충만할 것이니,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영원하고 불멸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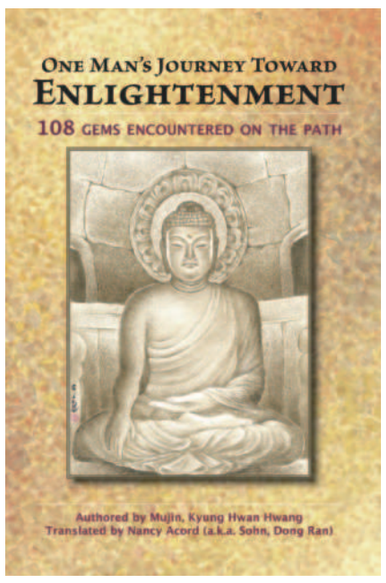

#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황경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에는 천 코 만 코가 있지만 정작 고기는 한 코에 걸리는 법"이라는 어느 선지식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품게 된 구도자가 걸려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의 그물코를 장만하게 되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0대 후반에 해상유류판매사업을 하던 그는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모면, 밤새도록 성난 파도와 싸우느라 생사를 넘나들다 겨우 살아남게 된다.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이 책에 제시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초기불교의 경전들과 불교 자체가 과학임을 입증해 보이는 현대의 양자물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책 속에는 불교의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해 보이는 과학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시공간의 세계를 받아들인 과학자 알랭 아스페,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영역이 함께 공존한다는 이론을 발표한 고스와미 박사, 아이작 뉴턴 이후 객관 세계의 담을 무너뜨린 '불확실성의 원리'의 하이젠베르크,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의 에드워드 로렌즈 등이다.

오감과 오감이 주는 쾌감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는 종 노릇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어난 존재의 실존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찰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 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 1688-9099(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비움과 소통 031)945-8739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